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Strength of Safety Management Capacity
in Local Government

2015. 12.

연구진

고경훈 (수석연구원)

이병기 (연구위원)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방안 연구

- 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

발행일 : 2015년 12월 31일

발행인 : 하혜수

발행처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30길 12-6

전 화 : Tel. 02)3488-7300

판매처 : 정부간행물판매센터 Tel. 02)394-0337

인쇄처 : 우노디자인 Tel. 02)2275-9718

이 보고서의 내용은 본 연구진의 견해로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의 공식 견해와는 다를 수도 있습니다.

※출처를 밝히는 한 자유로이 인용할 수는 있으나 무단전제나 복제는 금합니다.

ISBN 978-89-7865-407-4

서 문



한국사회의 ‘안전관리’ 패러다임의 변화 측면을 두고 볼 때 그 구분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세월호 사고는 한국사회에 만연했던 안전불감문화가 어떠한 파국을 가져오는지를 보여준 상징적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의식 부족과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의 부족함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중앙정부수준에서 뿐만 아니라 재난 현장의 최일선에서 대응과 복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도 ‘안전관리’ 역량부족으로 인한 늦장 대응과 그로 인한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위기관리’ 및 ‘안전관리’에 관한 많은 연구들이 있지만 보다 현장적합적인 측면에서 실질적인 안전 확보를 위한 사전적 조건이 무엇인지를 밝히는 연구는 많지 않았습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역사회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안전관리과정 및 절차를 구축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습니다. 또한 조작적 정의된 안전관리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수준을 측정하였으며, 분석결과를 기초로 안전관리 단계별로 각 항목의 개선순위를 제시하였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을 재난관리 단계별로 제시한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본 연구가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전략 수립 및 관계자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본 연구를 수행한 연구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15년 12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하 혜 수

요 약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우리사회 전반에 걸친 안전의식 부족과 정부의 안전관리 역량의 부족함을 명확하게 확인하게 되었다. 현장에서 대응과 복구를 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수준에서도 안전관리 역량부족으로 인한 늦장 대응과 그로 인한 피해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율적인 안전관리역량을 강화하는데 연구목적을 둔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안전관리담당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고, 안전관리역량의 우선순위 파악과 역량강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IPA분석을 실시하였다. 광역 및 기초 자치단체의 수준별 차이와 기초자치단체간 지역별 특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는 위해서는 t-Test와 ANOVA를 실시하였다. 이를 통해 조작적 정의된 안전관리역량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 수준을 측정하였으며, 안전관리 단계별로 각 항목의 개선순위를 제시하고 이를 기반으로 지방자치단체 수준에서의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 역량 강화전략을 제시하였다.

예방단계에서는 IPA분석 결과 중점개선 영역은 안전의식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둘째, 준비단계에서는 중점개선 영역은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과 협업 및 융합 역량으로 나타났다. 셋째, 대응단계에서는 중점개선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점진개선 영역은 조기경보 역량과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으로 나타났다. 넷째, 복구단계에서는 점진개선 영역은 회복력 역량으로 나타났다.

첫째, 소속별(광역, 기초)로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현재 보유역량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렬별로는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평균 상 역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직급별로는 평균 상으로 5급 이상보다는 6급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에 관한 평균비교 및 평균차이 검증결과로는 첫째,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필수역량 중요도에 있어서는 광역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들이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해서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직렬별, 경력별 필수역량 중요도 비교분석결과,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15개의 역량 가운데 상황전파 역량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셋째, 직급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서는 5급 이상은 기관장 리더십과 복구계획 역량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6급 이하는 상황전파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목적	3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5
1. 연구의 범위	5
2. 연구의 방법	5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7
제1절 안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9
1. 안전의 개념과 의미	9
2. 안전관리의 필요성	12
3. 안전관리 영역에서 Risk 및 위험	13
4. 안전관리의 과정	14
5. 안전관리 관련 업무	18
제2절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25
1. 역량의 개념	25
2. 역량의 유형	27
3. 안전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28
4. 안전관리 역량강화 단계	30
5. 안전관리 역량지표	32
제3장 연구의 분석틀 및 조사설계	41
제1절 연구 분석틀	43
제2절 조사설계	44

제4장 안전관리 역량 분석결과	47
제1절 응답자 기본현황	49
제2절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보유 수준 분석	50
1.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	50
2. 현재 안전관리 역량의 보유 수준	68
제3절 안전관리 역량 차이분석(Gap Analysis) 결과	85
1. 재난 관리 단계별 안전관리 역량	85
2. 각 단계별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와 현재 역량수준 차이	86
제4절 안전관리 역량 평균비교 분석 결과	97
1. 안전관리 역량 평균비교 분석	97
2. 필수역량 중요도 평균비교 분석	103
제5장 결 론	111
제1절 연구의 요약	113
제2절 정책적 제언	118
【참고문헌】	121

표 목차



〈표 2-1〉 선행연구 정리	37
〈표 2-2〉 안전관리역량 점검지표와 관련 단계별 역량	38
〈표 3-1〉 표본 및 유형별 자치단체 수	45
〈표 3-2〉 재난관리 단계별 안전관리 역량 설문문항 및 내용	46
〈표 4-1〉 응답자 소속별 현황	49
〈표 4-2〉 응답자 직렬별 현황	49
〈표 4-3〉 응답자 담당 업무 담당 기간별 현황	50
〈표 4-4〉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전체)	50
〈표 4-5〉 특성별 안전의식 역량 중요도	52
〈표 4-6〉 특성별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중요도	53
〈표 4-7〉 특성별 교육 및 훈련 역량 중요도	54
〈표 4-8〉 특성별 거버넌스 구축 역량 중요도	55
〈표 4-9〉 특성별 협업 및 융합 구축 역량 중요도	56
〈표 4-10〉 특성별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중요도	57
〈표 4-11〉 특성별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중요도	58
〈표 4-12〉 특성별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중요도	60
〈표 4-13〉 특성별 상황전파 역량 중요도	61
〈표 4-14〉 특성별 조기경보 역량 중요도	62
〈표 4-15〉 특성별 정책결정 역량 중요도	63
〈표 4-16〉 특성별 회복력 역량 중요도	64
〈표 4-17〉 특성별 기관장리더십 역량 중요도	65
〈표 4-18〉 특성별 복구계획 역량 중요도	66
〈표 4-19〉 특성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중요도	67
〈표 4-20〉 현재 안전관리 역량 보유(전체)	68

〈표 4-21〉 특성별 현재 안전의식 역량 보유	70
〈표 4-22〉 특성별 현재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보유	71
〈표 4-23〉 특성별 현재 교육 및 훈련 역량 보유	72
〈표 4-24〉 특성별 현재 거버넌스 구축 역량 보유	73
〈표 4-25〉 특성별 현재 협업 및 융합 역량 보유	74
〈표 4-26〉 특성별 현재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보유	75
〈표 4-27〉 특성별 현재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 보유	76
〈표 4-28〉 특성별 현재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보유	77
〈표 4-29〉 특성별 현재 상황전파 역량 보유	78
〈표 4-30〉 특성별 현재 조기경보 역량 보유	79
〈표 4-31〉 특성별 현재 정책결정 역량 보유	80
〈표 4-32〉 특성별 현재 회복력 역량 보유	81
〈표 4-33〉 특성별 현재 기관장리더십 역량 보유	82
〈표 4-34〉 특성별 현재 복구계획 역량 보유	83
〈표 4-35〉 특성별 현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보유	84
〈표 4-36〉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역량수준 점수	85
〈표 4-37〉 IPA 결과 영역별 전략	87
〈표 4-38〉 예방단계의 안전관리 역량 Gap 분석 결과	87
〈표 4-39〉 예방단계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원인	88
〈표 4-40〉 준비단계의 안전관리 역량 Gap 분석 결과	90
〈표 4-41〉 준비단계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원인	90
〈표 4-42〉 대응단계의 안전관리 역량 Gap 분석 결과	92
〈표 4-43〉 대응단계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원인	93
〈표 4-44〉 복구단계의 안전관리 역량 Gap 분석 결과	95
〈표 4-45〉 복구단계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원인	95
〈표 4-46〉 소속(광역, 기초)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97

〈표 4-47〉 소속(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99
〈표 4-48〉 직렬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100
〈표 4-49〉 경력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101
〈표 4-50〉 직급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102
〈표 4-51〉 소속별(광역, 기초)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분석	104
〈표 4-52〉 소속별(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분석 ..	105
〈표 4-53〉 직렬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분석	106
〈표 4-54〉 경력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분석	108
〈표 4-55〉 직급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분석	109

그림 목차



〈그림 2-1〉 안전관리의 과정	15
〈그림 3-1〉 본 연구의 분석틀	44
〈그림 4-1〉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전체)	51
〈그림 4-2〉 현재 안전관리 역량 보유(전체)	69
〈그림 4-3〉 예방단계의 IPA 결과	89
〈그림 4-4〉 준비단계의 IPA 결과	92
〈그림 4-5〉 대응단계의 IPA 결과	94
〈그림 4-6〉 복구단계의 IPA 결과	9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목적



우리는 수많은 다양한 위기 속에서 살고 있으며, 더욱이 현대화, 산업화 등으로 인해 우리의 생활이 편리해지는 만큼 생활환경 속에서의 위기도 증가하거나 잠재해 있기도 하며, 이는 시간과 장소에 상관없이 우리의 삶을 직간접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위기가 발생하는 분야는 각종 시설물이나 식품 및 위생, 스포츠, 교통, 화재, 재해 등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할 수 있으며, 그 환경도 물리적 차원에서뿐만 사회환경적, 인적 차원 등 역시나 다양하다. 그런 속에서 위기로부터 보호받고 그 기능을 유지함으로써 안전을 추구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이며, 동시에 이는 한 개인에게 있어서도 단순히 신체적, 정신적 손상의 위험을 예방하거나 손실을 최소화한다는 일차적 차원을 넘어 궁극적인 우리의 생존이나 삶의 질에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중대한 생활의 변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대한민국은 세월호 참사 이전과 이후로 나누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세월호 사고는 우리 사회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고, 공공부문에 대해서도 상당한 충격과 고민을 남겼다. 그 동안 우리 사회의 물 밑에서 드러나지 않고 있었던 부정과 부패, 부조리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해 온 결과였고, 그것이 세상 밖으로 드러난 사고였다. 또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문화로 자리 잡아온 안전불감 사회의 민낯을 그대로 보여줬고,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로 믿어왔던 국가와 정부의 무능과 무관심을 확인하게 된 계기였다.

해상에서의 구조구난의 책임을 가지고 있던 해양경찰들의 무능함과 위기상황을 총괄하는 지도부의 위기관리역량의 부족은 국민적 공분을 불러일으켰고 급기야는

해양경찰청의 해체와 국민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새로운 총괄기구의 탄생의 필요성이 대두되게 되었다. 또한 원인이 무엇이든 국민의 안전에 대처하는 정부행태와 관행에 대한 국민적 질타는 끊이지 않았으며 공무원들의 인사를 책임지는 분야의 변화와 혁신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다.

이에 정부는 사회재난·자연재난, 소방, 해양안전의 기능을 통합하여 기동성을 갖춘 조직으로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육상과 해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유형의 재난에 현장 중심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민안전처를 신설하게 되었다. 알려진 바와 같이 국민안전처는 소방과 해경의 기능뿐만 아니라 소방과 방재의 기능과 안전행정부 본부 조직이었던 안전관리의 기능까지 합친 거대한 조직으로 탄생한 바 있다. 중앙정부는 세월호 사고를 계기로 한 차례 쇄신하였을 것이고, 새로운 재난안전관리 컨트롤타워가 신설될 만큼 이 조직이 효과적으로 운영될 것을 우선은 지켜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관리감독 권한을 중앙에 너무 집중시켰다는 점은 아쉬운 대목이다.

뿐만 아니라, 세월호 사고는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위기관리에 대한 실태도 여실히 드러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민과 가장 밀접한 현장에서 주민을 위해 존재한다고 주장해왔던 지방자치단체들이 주민의 생명과 재산, 건강 보호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다는 것이 확인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및 안전관리 능력은 매우 부족하나 실정이다. 지방자치단체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충분히 준비하고 있고,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예방 노력을 최대한 기울이고 있는지, 또는 재난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게 경보를 울리고 인명을 구조하며 부상자들을 신속하게 치료할 수 있으며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킬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서 자신할 수 없다. 또한 재난관리나 안전관리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주민들 스스로가 위험한 요소들을 찾고 제보하는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조례나 행정 시스템, 또는 재난안전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있는지 등 어느 한 대목에 대해서도 답변이 쉽지 않다. 지금이야 말로 자치단체들이 주민 생명과 안전 확보를 위해 새롭게 변모하기 위해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위한 능력을 키우려

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다.

따라서 안전한 지역사회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안전관리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하지만 실질적인 안전확보를 위한 사전적 조건에 대해서는 언급이 결여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치단체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효율적인 process를 구축하기 위해, 안전관리 역량이 무엇인지를 규명하고, 현재 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 수준을 측정하며 이를 토대로 안전관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한 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 전략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본 연구의 범위는 안전관리에 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역량으로 한정하도록 한다.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안전관리 단계별로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역량이 무엇이고 이러한 역량의 현재 수준은 어느 정도이며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의 차이가 발생한 원인과 이러한 차이를 줄이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를 개발하는 것으로 연구의 범위를 설정한다.

2. 연구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역량과 부족역량을 진단하기 위하여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자 하며, 설문구성시 선행연구를 통해 도

출된 필요역량 항목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설문조사는 5점 척도로 구성하여 각 직무역량별 필요수준과 현재수준을 질문하며 역량부족 원인에 대해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하도록 한다.

수집된 설문자료를 분석하기 위해서 필요역량과 현재역량과의 차이(Gap) 분석을 실시할 예정이며 Gap분석은 구성원들이 미래가치와 현재 상태에 대한 평가와의 차이를 통하여 안전관리 역량을 산출하고, 이 역량이 향후 역량개발을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영역이 무엇인지를 판단하는 방식이다.

또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교차분석 및 빈도분석과 더불어 대상공무원들의 집단간 차이를 분석하기 위한 ANOVA를 실시하여 경험적 접근을 시도할 예정이다.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제1절 안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제2절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제2장 연구의 이론적 배경과 분석틀



제1절 안전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



1. 안전의 개념과 의미

“안전”이란 용어는 여러 가지 뜻으로 통용, 해석되고 있어 한마디로 축약하여 정의하기에는 무척 광범위하다. 안전의 사전적 정의는 ‘위험이 생기거나 사고가 날 염려가 없음, 또한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안전공학 측면에서의 안전의 의의를 살펴보면 ‘안정되며 위험하지 않은 상태를 말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완전한 상태에 달해 있고, 재차 부족한 일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즉, 재앙이나 위험이 실제로 없는 것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인간이 상해를 받거나 또는 받을 걱정이 없는 것, 사물이 손해, 손상을 입거나 또는 그 우려가 없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또한 안전(Safety)은 위험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부터 위험은 존재하지만 어느 정도 감수 또는 극복 가능한 상태 등에 이르기까지 그에 대한 인식과 수준의 폭은 매우 클 수 있다. 그러나 현대사회의 다양한 변화 속에서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다양한 변수들도 날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 안전 상태를 보장하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안전이란 위험과 대조를 이루는 동시에 상존하면서 그 상관성과 인과관계에 따라 다양한 문제적 현상을 초래하는 불가피성을 갖게 된다(이경준, 2013).

안전과 위험의 개념은 주관성과 상대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모두가 공감하는 수준을 명확하게 정의를 내리기는 어렵다(배대식, 2009). 또한 안전을 ‘위험하지만 그 위험이 무시될 수 있거나 또는 이득이 더 크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있는 위험’으

로 정의하기 한기도 하는데(유현정, 2008), 이 경우, 안전의 절대성이 불가하다는 측면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타당한 개념으로 볼 수 있다(이민규 외, 2011).

안전한 상태란 위험 원인이 없는 상태이거나 위험 원인이 있더라도 인간이 손상이나 사고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이 세워져 있는 상태를 뜻한다. 안전에 대한 학자의 견해를 통해보면, 우선 안전을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상태로 보는 소극적 측면과 더 나아가 재해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이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는 상태로 보는 적극적 측면의 개념 정의를 볼 수 있다(권혜진 외, 2012). 또한 권봉안·정순광(2001)은 안전한 상태를 위험에서 오는 사망이나 상해, 질병 혹은 재산 상의 손실 등의 손해를 방지하거나 최소화시키려는 상태로 정의하였으며, 권창기 외(2012)는 위험이 없는 것으로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접하는 모든 위험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정지범·윤건(2014)은 한 사람의 신체나 재산 상 피해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등으로 정의한 바 있다.

한편, 안전관리는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를 사전에 제거하거나 피해를 경감시키기 위한 제반활동이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계획, 긴급대응, 피해경감, 복구개선에 관한 정책의 개발과 집행과정을 총칭한다(김태환, 2004).

안전관리를 개념적으로 보다 분명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난관리에 대한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의 안전관리체계를 지탱하고 있는 법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이다. 이에 의하면, 재난은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국가에 피해를 주거나 줄 수 있는 것”을 의미하며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구분된다. 자연재난은 태풍이나 홍수와 같은 자연현상으로 나타나는 재해이고 사회재난은 화재나 붕괴, 교통사고 등으로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 에너지·통신과 같은 국가기반체계의 마비 혹은 감염병이나 가축전염병 확산으로 인한 피해를 의미한다. 재난관리는 “재난의 예방·대비·대응 및 복구를 위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하고, 안전관리는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하는 모든 활동”을 의미한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따라서 안전관리는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개념이다.

재난관리와 안전관리를 보다 구체적으로 비교했을 때, 첫째, 재난 개념은 사후적이고 안전 개념은 사전적이다. 즉 재난은 사후의 실제적인 피해를 의미하고 안전은 사전적으로 그러한 피해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관리 개념에서는 양자간의 개념 구분이 어렵다. 엄밀하게 보면 재난관리는 재난 발생 이후, 대응의 개념이지만 실제 그러한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예방이나 재난 발생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되는 대비 등, 사전적 관리를 포함할 수 있다. 안전관리 개념 또한 사후 적절한 대응과 복구는 사후 안전을 위한 것이므로 사후적 관리가 포함될 수 있는 것이다.

셋째,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를 가정하는 경우 재난관리와 안전관리의 구분이 가능하다. 즉 재난관리는 일정한 규모 이상의 피해를 관리하는 것이지만 안전관리는 그러한 가정이 없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일정한 규모라는 기준이 불명확하다는 문제가 있다.

넷째, 위험관리, 위기관리, 비상관리 등의 개념과 재난관리, 안전관리 개념을 구분하기도 명확하지 않다. 미래 부정적 불확실성을 통제하는 위험관리는 재난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재난관리 혹은 안전관리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재난은 중대한 부정적 전환점이 될 수 있으므로 재난관리는 위기관리의 일환이 될 수 있다. 재난 상황은 예기치 못한 상황이 많으며 이 경우 기존의 조직으로 문제 해결이 불가능하여 새로운 특별 조직의 구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 경우 재난관리는 비상관리와 다르지 않다.

결국 안전관리는 사전관리와 사후관리를 망라하는 포괄적 개념이며, 구조, 구난 및 수습, 복구 등 사후관리에 중점을 두는 재난관리를 포함하는 광의의 개념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와 기타 유사개념과의 명확한 구분보다는 통합적인 시간에서 안전관리를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을 포함해서 재난의 사전적 예방과 준비,

재난 발생시의 대응, 그리고 재난 이후의 복구와 개선을 포함한 과정을 안전관리로 정의한다.

2. 안전관리의 필요성

최근 생활 속에서의 안전이나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사실 위험 내지 위기라는 것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라는 점에서 어느 정도 수용가능하고 극복 가능한 수준에서의 체계적인 생활안전 및 위기관리에 대한 접근이 보다 실효적이라는 것이다.

이장국(2007)은 안전의 정의를 재해의 개념과 상대적으로 비교하여 “예상되는 어떠한 위험에 대해 주의하고 대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하거나 사고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이 안전인 반면,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 인한 사고이거나 불가항력적인 사고를 당하게 되어 그 피해의 규모가 큰 것이 재해”라고 하고 있다(배대식, 2009에서 재인용). 이러한 위기적 측면을 타파하고 일상에서의 생활안전을 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과 방안들이 필요하다. 따라서 생활안전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안전관리 및 위기관리의 개념을 통해 그 필요성과 의의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생활안전이란, “국민의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생명과 건강, 재산상의 피해를 받지 않는 상태”(이재은·유현정, 2007)로 정의할 수 있으며, “가정, 학교, 사회생활 등 일상적으로 접하는 생활환경에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에 대한 지식, 태도, 행동을 신장시키는 것”(두경자·윤용희, 2006; 신현정·신동주, 2007; 배대식, 2009에서 재인용)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를 통해 볼 때, 국민생활안전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과정에서 국민 각자의 건강과 안녕(well-being)이 유지될 수 있도록 육체적, 심리적 또는 물질적 위해의 원인이 되는 위험요인과 상황, 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상태’라 할 수 있다(배대식, 2009). 이러한 의미에서 안전관리란 주변 환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의 원인과 가능성에 대처하기 위해 인적 환경이나

물적 환경에 잠재하는 위험 요인을 초기에 발견하여 제거하고 사고나 재해를 방지 하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생활안전 및 안전관리 측면은 ‘위기관리’라는 측면과도 결코 다르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즉, 위기관리란 위기를 예방하고 위기발생에 대비하여 대응태세를 유지하며, 위기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피해를 최소화하고 조기에 위기발생 전의 상태를 회복한 후 재발 방지를 위한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서상열, 2007; 권 정훈, 2011에서 재인용). 이에 생활 속에 내재하는 위험요인에 대한 인식과 대처, 이 를 위한 관리는 상호연관성과 실재하는 위기의 관리를 통한 생활안전 도모와 안전 관리의 필요성을 다시금 인식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주변 환경 내 위기로인들에 대한 인식과 대처 그리고 관리는 위기를 제어하고 생활안전을 도모하는 중요한 기 제가 되는 것이다.

3. 안전관리 영역에서 Risk 및 위험

안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Risk와 위험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 두 개념이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기 때문이다.

Risk란 손해 발생의 개연성이 없어서 위험의 단계에는 이르지 못하나, 손해발생 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여기에서의 위험단계는 국가가 개입하지 않더라도 공동체가 감수할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는 단계로서 규범적으로 결정된 것을 말한다. 이러한 감수해야 할 Risk에는 알려져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Risk도 있다. 그러므로 Risk란 원치 않는 결과의 발생 가능성은 있으나 불확실 한 것을 말한다. 원치 않는 결과의 발생이 확실하다면 Risk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만큼 Risk는 무시할 수 없는 불확실한 사실이지만 측정이 어렵다는 한계가 있 으므로 통계적인 수단을 통해 객관적으로 측정되고 표현될 수 있는 위험에 초점을 두어 왔다. 그리하여 일상용어로는 Risk를 종종 위험과 같이 사용되고 있다.

한편, 일반적으로 위험은 공공의 안전·질서에 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나,

그것을 방지하게 되면 가까운 장래에 공공의 안녕질서에 해를 가져올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 상태 등으로 정의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개념의 중심은 과연 언제 위험이 존재 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행정권의 발동이 언제 적합하게 되는가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위험방지를 그 임무로 하는 경찰작용은 특히 이러한 위험의 강도와 그 손해의 중요성과 밀접한 관련을 맺게 된다.

그런데 이러한 위험은 개인의 행동으로부터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기술적 또는 인식 과정으로부터 도출된다. 현대사회의 이러한 위험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첫째, 과학지식의 불완전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과학지식의 한계는 인간의 인식능력의 한계이다. 둘째, 인간의 예측능력의 한계이다. 즉, 올바른 과학지식을 활용하더라도 비정상적인 결과가 장래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의 결과를 완벽하게 예측할 수 없다. 셋째, 과학기술과 관련되는 관리하는 사람의 실수에 의해서도 위험은 발생한다. 넷째, 과학기술의 개별적인 부산물으로써 새로운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기존의 위험을 증폭시킬 수도 있다(손윤호, 2011).

4. 안전관리의 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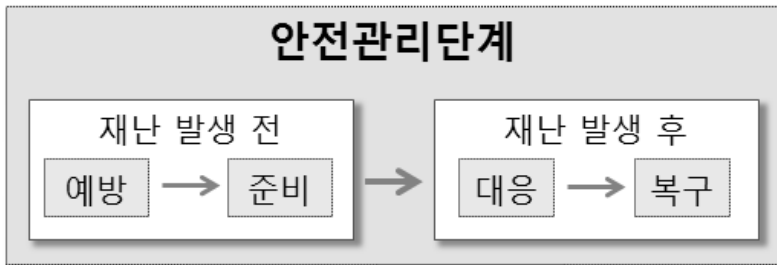
안전관리는 일반적으로 재난발생시점이나 관리시기를 기준으로 구분된다. 안전관리과정을 안전한 상태의 유지와 재난의 발생 및 대응활동에 따라 재난 이전과 이후 즉 사전재난관리와 사후재난관리로 나눈 뒤, 시계열적으로 이루어지는 안전관리과정은 첫째, 예방, 둘째, 준비와 계획, 셋째, 대응, 넷째, 복구 등의 4단계로 구분이 가능하다(Petak, 1985:3, Rubin, 1985: 20).

이와 같은 안전관리의 4단계는 상호 단절적인 과정이라기 보다 상호 순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각 단계별 과정의 활동결과 및 내용은 다음 단계 활동에 영향을 미치고 마지막 복구활동의 결과, 노력 그리고 경험 등은 다시 최초의 완화단계에 환류되어 장기적인 안전관리능력 발전에 영향을 미친다(McLoughlin, 1985: 166).

안전관리의 모든 과정이 하나의 관리체계 속에서의 고유한 기능을 지니고 있는

하부체제로서 작용하게 되고 이 네 가지 과정이 통합관리 될 때만 효과적인 안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안전관리의 총체성으로 인해 여기에 참여하는 각종 기관, 각 수준의 정부의 조정과 통제 등 필요한 활동체제를 갖추는 노력 또한 안전관리에 필수적 요소이다.

〈그림 2-1〉 안전관리의 과정



가. 예방단계

예방 단계는 위험감소 계획을 결정, 집행하고, 각종 재난으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에 대한 위협의 정도를 감소시키려는 장기적인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따라서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고 재난발생 가능성을 감소시키며 재난의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한 활동을 말한다.

이 단계는 사회와 그 구성원의 건강, 안전 복지에 대한 위협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위험요인을 줄여서 재난 발생의 가능성을 낮추는 활동을 수행하는 단계이다. 장기적 관점에서 장래의 모든 재난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정치적, 정책지향적 기술이 필요하다는 점이 다른 단계의 활동과 구분될 수 있다. 재난에 대비한 예방활동에는 사전예방대책의 수립, 재난 피해 감소방안의 마련, 재난 영향의 예측 및 평가 등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주요활동에는 취약시설에 대한 주기적 점검 및 규제, 주요방재

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의 수립, 기상정보 및 재난 취약요인에 대한 분석 등이 있다. 안전 재난관리의 예방 활동에는 재난요인의 사전 제거, 안전기준의 설정, 위험에의 노출 감소 등이 있다. 또한 세부활동에는 위험측정 분석 및 관리, 위험시설물의 보수 및 보강, 홍보 및 경보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예방 및 완화 활동을 통해서서는 인명 및 재산손실 예방이나 감소, 사회적 혼란과 스트레스의 최소화, 중요시설물의 유지, 사회 기반시설의 보호, 정신적 건강보호, 정부와 공무원의 법적 책임 감소, 정부 활동을 위한 긍정적인 정치적 결과의 제공 등과 같은 성과와 편익을 얻을 수 있다.

나. 준비단계(대비 및 계획)

준비단계는 예방 및 완화단계의 제반활동에도 불구하고 재난발생확률이 높아진 경우 재난 발생 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 준비 장치를 갖추는 단계이다. 자연재해 관리 활동으로는 사전훈련 및 협조체제의 유지, 대응자원의 확보 및 비축, 위험경보체제의 구축이 있고, 보다 세부적으로는 위험 유형별 사전 교육훈련 실시, 자재 비축 및 장비의 가동준비, 자원수송 및 통제계획의 수립의 긴급지원대책 수립, 재난 예보 및 경보시설, 그 체제의 구축, 주민대피 홍보업무의 체계화, 위험관련 비상방송 협조체제 구축 등이 있다. 인전관리와 관련해서는 대응훈련의 실시, 기관 간 사전 조정 및 협조의 확보, 대응자원의 확보활동 등이 있다.

준비단계의 주요활동에는 재난 종류별 대응 훈련, 표준운영절차 확립, 재난 종류별 유관기관 확인, 자원보유기관의 확인 자원의 수송 및 통제계획 수립 등이 있다.

다. 대응단계

대응은 위기로 인해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고 원조를 제공하며, 제2의 손실발생 가능성을 최소화시키려는 일련의 활동이며, 복구단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을 최소화시키는 단계이다. 대응이란 실제로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수행

해야 할 행동으로 재난이 발생한 직후 초기에 취해지는 제반활동이며 안전관리의 전 과정중에서 시간적으로는 가장 짧지만 이 단계에서의 효과적인 활동을 위해 준비단계에서 모든 안전관리자가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또한 이러한 대응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총체적인 비상관리나 통합관리체계가 필요하며 사전에 긴급대응계획을 수립하고 대비하여야 한다.

대응단계에서의 주요한 활동은 준비단계에서 수립된 각종 안전관리계획 실행, 사고대책본부의 활동개시, 긴급대피계획의 실천, 탐색 및 구조활동, 부서지거나 무너진 온갖 잔해 제거, 비상운영조직의 활성화, 비상의료지원, 피해자 수용과 보호관리, 그리고 피해자에 대한 음식 및 숙소제공 등이 있다.

대응단계에서 중요한 요소는 첫째, 안전관리책임자들이 재난의 유형에 따라 동일성과 상이성을 파악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대응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는 것과 둘째, 안전관리 책임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획득해야 할 것, 특히 이 대응기간 중의 신뢰획득을 위해서는 재난 발생 이전부터의 계획, 훈련 등을 통한 사전 인지가 중요하다. 셋째, 안전관리의 목표를 분명히 세워두는 것이다. 이 목표가 분명해야 실제 재난 상황시 구조체계나 각 구조기관간의 협조체계가 원활히 작동해 그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하면 인명을 구호하고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많은 기관과 인력이 참여하게 되며 재난 대응활동의 성패는 이에 참여하는 기관과 단체들 간의 상호 협조, 협력 및 유대관계의 견고성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다른 기관의 역할을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효율적인 재난대응 활동이 가능하다.

라. 복구단계

복구는 재난 발생 후, 원래 상태로 회복하기 위한 모든 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재난으로 인한 혼란상태가 상당히 안정되고 응급 인명구조와 재산의 보호활동이 이루어진 후에, 재난발생 전의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일체의 활동을 말한다(임송태

외, 1996: 35). 복구정책은 초기단계와 이후단계로 구분하며 초기에는 최소한의 수준에서 생활지원체계가 회복 가능하도록 긴급자원을 제공해야 하며 그 이후에는 공동체가 원래의 상태를 회복할 때까지 지원을 계속해야 한다(Petak, 1985). 뿐만 아니라 복구단계에서는 학습에 의한 재발방지 노력에 비중을 두고 기존 정책의 오류 발견과 이의 피드백이 이루어져야 한다.

복구단계의 주요활동에는 복구상황의 점검 및 관리, 피해파악 및 긴급지원, 재난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및 평가가 있으며 세부적인 활동으로는 중장기 복구계획 수립 및 복구 우선순위 설정 결정, 복구장비 및 복구예산 확보 방안 마련, 복구지원을 위한 관계기관들과의 협조, 피해상황 집계, 긴급지원 물품 제공, 피해자 보장 및 배상 관리, 재난 발생원인 및 문제점 조사, 유사재난재발방지책 마련, 피해유발 책임자 및 책임기관에 대한 법적 처리 등이 있다.

5. 안전관리 관련 업무

가.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 계획 수립은 재난 발생 전의 실행되어야 할 업무 영역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업무를 살펴보면(방기성, 2014), 먼저 안전 유형별 취약성 조사 및 위험도 분석을 실시하여 위험요소를 도출하는 것이다. 관할지역의 위험요소를 정성적, 정량적 방법으로 조사하여 위험발생 확률과 예상 손실의 정도를 측정 한 후 해당 기관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활동이며, 일반적으로 확률과 예상 손실이 높은 재난은 우선 관리 대상이 된다. 또한 위험 유형별 취약성 분석 결과에서 우선 관리대상으로 선정된 재난이 실제 발생했을 경우, 인명, 설비 및 기반 시설 등에 나타날 수 있는 피해규모를 측정하여 안전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근거 자료를 제공한다.

다음으로는 안전관리를 위한 정책방향을 수립해야 하는데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활동과 유지,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의해야 하며, 지속적인 검토와 개선 노력을 통해 안전관리 정책을 최신의 것으로 유지하여야 하고 정형화된 배포 절차를 통해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와 공유해야 한다. 안전관리 정책은 정책의 방향 정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 특정책임기관에 대한 재난관리 관련 역할과 책임, 보호 대상 주요 자산 정의, 재난관리 활동에 수반되는 자원 관리 정책, 상호 협조와 협력을 위한 각 기관별 관계 정의와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이후에는, 재난 경감을 위한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 재난 경감체계에는 재난 유형별 예방대책이 포함되며, 이의 실행을 위해서는 구조적 대책(기술적 측면)뿐 만 아니라 기관이 해야 할 기본 지침이나 규정과 같은 비구조적인 대책(관리 및 제도적 측면)도 포함되어야 한다.

안전관리를 위한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평상시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체계를 운영 및 유지관리하기 위한 안전관리 담당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안전관리 담당 조직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책임기관 등이 수립한 안전관리 세부계획의 실행 및 유지관리를 지원, 검토하는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하도록 해야 한다.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은 담당조직의 역할과 책임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문서화해야 한다. 반면, 비상시 조직은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복구 활동을 수행할 비상 조직을 구성해야 한다. 재난에 대응할 조직의 기본 구조, 역할 및 책임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난대책법, 소방법 등 각 재난 관리법에 정의되어 있는 역할 및 책임을 분석하여 부서별로 정의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연속성 계획에 관한 사항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재난유형별 취약성 분석 및 위험도 분석을 통해 재난 경감방안을 포함한 전반적인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이러한 대책에 기초하여 대비 계획, 비상대응 계획, 복구 계획을 수립하며 재난 대응 순서에 기초한 이들 계획 간의 선후행 관계를 포괄적으로 조정하여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한다. 대비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재난 대비에 필요한 업무의 표준화가 선행되어야 하며 표준화된 업무에 따라 비상운영계획, 표준행동절차, 소요자원 산정, 자원활용을 위한 자원관리체계와의 연계, 실행과

정 모니터링, 안전관리 담당자의 행동요령, 안전관리를 위한 필요한 설비 및 설비의 활용방법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된다. 대비계획 수립 시, 부서 및 이해관계자 간에 상호 협력의 범위와 성격도 고려하여야 하며 관련 담당자 연락처, 최소한의 협의 사항, 대체 직무관계, 대체 자원관리방안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나. 상황관리

상황 관리는 재난 발생에 따른 예·경보, 상황전파, 긴급대응, 자원동원, 외부기관과의 협력 등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시·통제·보고·조정을 하는 것이다. 주요 관리업무를 살펴보면 첫째, 안전 건전성 모니터링으로 해당 지역에 존재하는 위험요소를 파악하고 재난발생 가능성을 분석하여 예측된 정보를 예·경보 또는 국가 위기경보체계와 연계하여 위험요소를 제거하는 안전건전성 모니터링 활동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안전건전성 모니터링은 정보수집, 모니터링, 예측, 평가의 4가지 개념을 기반으로 계획을 수립한다.

둘째, 위험 예·경보는 국민 및 소속 구성원에게 위험 발생 전에 위험 발생 가능성을 경고하고, 위험 발생 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사전에 정의된 재난 대응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한 활동이다.

셋째, 재난 발생 전·후의 상황을 종합하여 정보를 전달하고 상황에 따라 필요한 대응 절차를 확립, 실행, 유지해야 한다. 상황전파 절차는 살펴보면 먼저, 위험한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정황의 식별과 인지가 필요하며, 잠재적 위기의 인지와 보고에 대한 책임을 정의하고, 조직 내 상황전파가 이루어져야 하는 기준점에 대해 정의, 비상 연락 : 비상연락망 준비(가족, 이해관계자, 유관기관, 협력 업체 등), 연락 대상별 방법과 내용 정의(Call Tree), 위기 발생 직후 피해가 발생한 범위와 강도 중심으로 상황평가, 상황전파의 유형에 대한 표준화 순이다.

넷째, 재난 홍보는 사고의 발생 및 대응, 복구 현황 등을 대내외적으로 전달하는 활동이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체계를 개발

및 유지해야 한다. 홍보 전담 조직을 구성하여 외부와의 의사소통 시 일관성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국민의 혼란을 예방하여 신뢰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

다섯째, 지휘통제는 위험 발생에 따른 피해의 정도에 따라 수립된 비상대응 계획에 근거하여 재난을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도록 설계된 체계이다. 비상대응의 성패는 신속한 대처를 통한 재난의 확산방지에 있으므로 재난의 조기 발견 및 전파 시간의 최소화, 재난을 통제할 수 있는 초동 대응태세의 확립, 재난 대응 방법에 대한 신속한 의사결정, 활동 결과의 원활한 보고와 필요한 지시·명령의 전달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현장 지휘관리 중심으로 지휘통제가 실시되어야 한다.

여섯째, 상호협력 체계는 재난발생 전부터 재난발생 후까지의 범위에 걸쳐 수행된다. 협력 체결할 수 있는 9가지 주요 기능에 따라 협력활동이 실행되며 각각의 기능들은 계획, 실행, 점검, 조치단계에 따라 관리된다. 각각의 관리단계에서는 정보공유가 이루어진다. 협력지원체계의 대상 분야는 인적 자원, 시설, 장비물자 등의 자원이며 협력지원체계의 대상기관들은 지원 협약 체결을 통해 자원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및 절차를 확인한다.

일곱째, 지휘통제 과정에서 정확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 정보는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수집되는데, 이러한 수집된 정보는 분류되고 재가공 되어져서 의사결정에 사용되어야 한다.

다. 자원관리

자원 관리는 재난관리계획의 실행과 통제를 위해 필요한 자원을 습득, 분배, 관리하기 위한 체계이다. 자원에는 자원봉사자 및 현장 시민을 포괄하는 인적자원과 기반시설, 기술과 재정자원, 정보와 정보력이 포함되며 이 중에서 인적자원은 적절한 교육과 훈련, 기술, 경험 등을 토대로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효과적인 자원 관리를 위해서는 자원을 수급, 분배하기 위한 업무 절차와 물자 조달 역량을 갖추어야 하

며, 자원에 대한 주기적 점검과 유지보수를 실행해야 한다.

첫째, 위험 유형을 기준으로 안전자원을 인적자원, 물적 자원(시설, 장비, 물자), 기타자원(행정 및 예산, 재난정보)으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원은 기능별 활용 분야, 종류 및 크기, 재원 등을 포함하여 위험 유형으로 분류한다. 자원 분류의 목적은 기관 간 자원의 요청 및 동원의 효율성을 높여 재난대응에 필요한 자원을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함이다.

둘째, 자원 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다양한 긴급 상황 하에서 자원을 관리하고 분배하기 위한 계획을 개발한다. 다음으로 자원관리 담당자를 지정하여 물자 및 자재의 비축, 재난방지 시설의 정비와 장비의 관리를 해야 한다. 자원관리 담당자는 자원관리를 위해 필요한 훈련, 경험, 기능 등에 대한 전문적인 기준에 부합하는 자원관리 담당자로서의 자격과 자원 사용법 전파를 위한 자격 기준을 갖추어야 한다. 이후에는 자원을 크기, 용량, 성능, 기능 등의 특성에 따라 목록화 한다. 목록화 작업을 통해 다양한 기관들 간의 자원의 요청 및 분배 업무 수행 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현장지휘관은 현장에 필요한 적절한 자원을 공급받을 수 있다. 자원을 적재적소에 활용하기 위해 필요 자원의 요청 및 습득 절차, 방법을 사전에 정의하고 정비 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지원 협약의 활용이 요구된다. 평상시 자원 요청 및 제공에 대한 각 기관들 간의 지원 협약은 재난 발생 시 효과적이며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가능하게 한다. 사전에 자원협약을 함으로써 재난 발생 시 인적 자원이나 기타 필요한 장비를 여러 기관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셋째, 전산시스템을 활용한 자원관리가 필요하다. 위험 발생 이전에 필요 자원의 종류 및 수량, 필요 장소 및 시점, 자원을 수령하는 사람과 자원을 사용하는 개인·기관 등을 정확하게 식별하여 세밀하게 구분하고 확인해야 한다.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모든 기관들의 자원 목록은 반드시 일치되어 있어야 하며, 기관 간 자원 목록화의 일치를 위한 작업은 위험 발생 이전에 실행되어야 한다. 안전관리 업무별 자원을 정형화하고, 자원을 관리할 수 있도록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목록화 된 자원의 세부내역을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여

자원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평상시·비상시 자원의 활용 및 모니터링에 적용한다. 평상시 자원 정보 제공에 포함될 내역은 자원의 위치, 자원을 수령하는 조직원들에 대한 사용법, 조직원의 안전 및 물자와 장비의 보안, 사람, 장비, 물품 이동의 조정에 대한 정보 등이다. 비상시 자원 정보에는 자원 요구 정보(날짜, 시간, 도착 장소, 수령자 이름 및 전화번호), 재난 발생 장소까지의 수송 수단 정보, 자원 요구 수량, 예상 비용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자원 활용 및 모니터링이 필요한데, 즉, 자원의 이동 상황을 모니터링 하여 자원이 적재적소에 활용되는지에 대해 확인해야 한다. 자원관리 담당자는 수립된 채널을 통해 자원 요구 통보가 오면 자원 동원을 시작한다. 자원 요구 통보 시 담당자는 날짜, 시간 및 도착 장소, 사고 장소까지의 수송 수단, 정해진 출발 날짜 및 시간, 장소에 대한 정보(주소, 접속자 이름 및 전화번호 등), 자원 요구 수량, 예상 비용 등을 확인한다. 자원 동원 절차에 자원의 추적이 포함되어야 하며, 자원이 장소에 도착하면 확인을 해야 한다. 자원 동원 절차에는 『설비 준비』, 『훈련 및 지원을 위해 사전에 설계된 안정된 설비』, 『사고 장소로 자원을 신속히 운송하기 위한 운송 수단의 확보』 등이 포함된다.

다섯째, 재난 자원의 비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 자원을 소모성 자원과 비소모성 자원으로 구분하여 비축해야 할 자원의 일정 수준을 사전에 정의하고, 자원 불출 및 재난관리 업무 종료 후 재적재해야 할 목표 수량을 정형화해야 한다. 목표 수량에 미달되는 소모성 자원은 재 구매를 위한 절차를 수립하여 자원을 재적재해야 하며, 비소모성 자원은 정비 및 세척 등을 통해 재활용 가능한 상태로 환원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해야 한다. 비소모성 자원의 경우, 지급된 자원을 반환할 때 사고 장소에서 반환 이유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하고, 지급된 자원들은 다음 동원을 대비해 원래 상태로 되돌려 져야 하며, 파손된 자원의 경우 공급부서를 통해 반드시 대체되어야 한다. 인적 자원의 경우 충분한 휴식 및 회복 기간이 필요하며 휴식을 위한 장소가 제공되어야 한다. 특히 업무 및 정신적 건강 관련 문제는 재난이 인원에게 끼친 영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작업을 포함하여 반드시 검토되어야 한다. 소

모성 자원도 반환 시에 반환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며, 보충된 자원은 자원 활용 시 다시 지급되어야 한다. 사고 관리 기관은 사전에 계획된 재정적 협약에 의해 소모된 자원에 대한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복구가 불가능한 회수 자원의 경우, 소모성 자원이든 비 소모성 자원이든 반드시 발표되어야 한다. 불필요하게 유출되는 자원의 관리 내역은 자원복구 절차상에 반드시 기입되어야 하며, 특별한 조작 및 준비가 요구되는 자원의 경우(화학 폐기물, 방사능 물질, 건축물의 잔해 등)는 정해진 규정 및 정책에 의해 취급되어야 한다.

라. 유지관리

유지관리는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행정 및 재무 지원, 그리고 최신의 안전관리계획 유지를 위한 평가 및 환류, 재난관리 문화형성을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먼저, 안전 행정지원은 기관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의 실현 가능한 안전관리 비전을 포함해야 하며, 기관장 및 안전관리 책임자가 안전관리 체계를 인지하고 관리 할 수 있는 능력을 습득할 수 있도록 수립되어야 한다. 행정지원 업무는 안전관리계획에 적용할 수 있는 법·규정·규칙 등으로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재정적 절차가 중요한데, 재난 발생 이전, 재난 발생 시, 재난 발생 이후에 안전관리 계획을 지원하는 자금집행 절차를 개발해야 한다. 자금집행 절차는 신속한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수립되어야 하며, 기존의 권한과 회계 원칙 및 규정에 따라야 한다.

셋째, 국가 안전관리 평가는 안전관리 활동이 현행법, 정책, 수립된 계획에 따라 원활하게 운영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안전 평가에 포함되는 내용은 실패 사례를 포함한 대응과정의 평가, 법령 준수, 대비 계획, 실행 수준의 평가, 내·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평가단을 통한 평가, 개선점 발굴 위주의 평가이다. 안전관리 평가를 통해 국가 안전관리계획의 전반적인 개선 방향이 결정되며, 유지·관리 작업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된다.

넷째, 환류 활동이다. 안전관리 활동 평가를 통한 환류사항은 법령 준수 평가, 훈련의 효과, 성능평가 등에서 도출될 수 있다. 평가를 통해 국가 안전관리 계획의 환류 사항이 도출되면, 해당 내용은 국가 안전관리 계획의 유지관리 절차에 따라 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개정 내역은 각기관장에 의한 확인 및 승인이 필요하다

다섯째, 교육은 참여자들에 대한 국가 안전관리에 대한 인식의 형성과 국가 안전관리 계획의 개발, 실행 및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역량강화를 목적으로한다. 훈련은 구성원의 국가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인식 제고하고,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적응과 유효성 확인하며, 구성원이 맡은 임무에 대한 숙련도 향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여섯째, 안전관리 역량 강화가 중요하다. 안전관리 계획에 대한 인식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식별하고 그것을 전달하는 절차를 수립해야 하며, 구성원에게 효과적으로 전달되었는지 평가해야 한다. 또한 국가 안전관리 계획이 조직의 다른 관리 활동과 동일한 관리체계의 일부로 구성원에게 인식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2절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



1. 역량의 개념

역량은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으며 포괄적으로는 직무 수행을 위한 기술이나 지식, 능력 등을 의미하며, 이에 대한 학자들의 개념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Boyatiz(1982)는 역량을 효과적이고 탁월한 업무수행의 원인이 되는 개인이 가지고 있는 내재적 특성이라고 정의하였으며 상황에 따라 개인의 역량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직무성고가 효과적이려면 조직내부의 환경에 맞는

정책, 절차, 상황과 개인의 행동이 일치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윤두섭·이승중(2004)은 역량에 대해 ‘조직의 목적달성을 위한 조직 및 조직구성원의 특성으로서 인적역량과 물적역량을 포괄하는 것이라 하였으며, 윤기석·홍은경·김주환(2003)은 기관 역량에 대해, 행정기관의 정책추진을 위한 체제와 관리상태, 개선의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이창길(2013: 216)은 역량의 소극적 의미와 적극적 의미를 구분하는데, 적극적 의미에서의 역량은 “직무와 관련된 지식이나 기술 이상의 우수한 수준의 조직성과 향상을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내재되어 있는 특성”을 의미한다. 소극적 의미에서는 단순한 직무 관련 지식이나 기술을 의미하지만 적극적 의미에서는 조직을 위한 탁월한 개인성과가 강조된다.

또한 역량 논의에서는 특히 조직성과가 중시된다. 권용수(2006: 131)는 역량 논의의 핵심이 개인성과를 조직성과로 연결시키는 것이라고 보았다. 종합해 보면 역량 논의에서는 우수한 조직성과를 내기 위한 개인의 기술이나 지식, 능력 등의 특성이 중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윤건 외, 2014: 12).

한편, 전문성 개념은 역량개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데 전문성은 단순한 전문지식만을 의미하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경험 요소나 실제적인 문제해결 요소까지 포함하고, 심지어 윤리성 등의 요소들을 포괄하기도 하기 때문에 역량과 전문성 개념은 구분이 쉽지 않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컨대, 역량은 조직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조직 구성원의 능력으로 조직구성원의 업무와 관련성이 높으며 조직에서 조직구성원의 역할과 업무특성에 의하여 변화하는 것으로 업무수행과정에서 타인과 다른 행동과 사고를 보이는 개인의 특성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특성을 가진 역량은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향상시킬 수 있는 지식, 태도, 기술 등의 개인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2. 역량 유형

역량의 접근법을 알기 위해서 역량의 개념과 더불어 역량의 유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Sparrow(1996)는 역량의 개념을 조직역량(핵심역량), 관리역량, 개인역량(직무역량)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였다. 이 가운데 먼저 조직역량은 모든 구성원들이 공유해야 하는 역량이며, 관리역량은 개인직무가 아니라 다른 조직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역량이고, 개인역량은 개인의 직무수행과 관련된 역량을 의미한다. 또한 역량은 개인이 수행하는 업무의 주요한 부분들에 영향을 주고 업무 성과와 관련성이 높고 조직에서 널리 받아들여지는 성과 기준에 대비하여 측정될 수 있으며 교육훈련과 개발을 통하여 개선될 수 있는 지식과 기술, 태도의 집합체로 정의하였다. 조직역량과 개인역량은 통합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서로 다른 영역에 속하지만 일정한 중복지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직무역량과 조직역량을 각각 개발하고 강화하는 작업이 중요한 동시에 조직역량에 연계된 직무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역량은 조직적 차원의 역량과 개인적 차원의 역량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역량을 조직 차원에서 보면, 조직 목적에 가장 충실하고도 합당한 역량이며 개인 차원에서 보면 개인의 직무나 책무에 가장 적합한 역량이다.

인적자원관리와 관련하여 역량을 논할 때 일반적으로 분석의 수준은 개인 수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개인 역량은 조직 역량의 중요 구성요소로서 기업 고유의 역량이 개인의 역량과 수렴되어 일관된 방향성을 가질 때 조직역량도 효과적으로 구체화 될 수 있다.

조직 수준의 역량은 조직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 조직이 고유하게 가지고 있는 자원 또는 능력의 묶음이라고 볼 수 있으며 어떤 조직이 다른 조직에 비해 우수한 원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조직 수준의 역량 모형은 인적자원관리에 바로 적용하기 어려우며, 먼저 역량의 유형과 분류체계를 도출한 후 이를 행동지표 형태로 개인 수준의 역량으로 구성하여 인적자원 관리에 활용할 수 있다.

3. 안전관리역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안전관리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기 위한 조직, 인력, 예산, 장비, 시설, 개인적 요소가 종합적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고창석, 2012).

가. 경계성과 가외성의 원리

재난은 언제 어디서 발생할 지 알 수 없으며, 재난 발생 후의 전개상황 역시 불확실하다. 더욱이 재난은 복잡성과 상호작용성으로 인해 피해 규모 예측도 어렵고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의 조직수준에서의 역량은 경계성의 원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즉, 안전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충분한 조직과 예산, 최고의 전문성을 지닌 인력, 최상의 장비를 갖춘 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관리체제는 유연화될 필요가 있다. 특히 재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여러 기관과 부서가 중첩적으로 임무를 수행토록 하며, 의사결정을 분권화 시켜서 재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 상호연계성 및 협력성 유지

재난으로 인한 피해규모나 그 영향력은 매우 크며, 대응해야 할 분야가 광범위하여 단일 부서나 기관이 재난을 관리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안전관련기관 및 부서들이 하나의 네트워크 체계로 구축되어 상호 연계성 있게 운영되어야 한다. 이러한 네트워크체계는 중앙정부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 조직, 때로는 국제기구나 NGO, 민간부분 등의 비정부조직까지도 총망라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난은 다수의 부서와 기관이 상호 협조하여 신속하게 이를 극복하여야 한다. 즉, 재난이 발생하면

예컨대 화재진압과 인명구조를 위한 소방요원, 사상자 응급치료와 후송을 위한 의무요원, 재난 지역의 질서유지와 교통통제를 위한 경찰요원, 재난지역복구를 위한 장비운용을 비롯하여 필요시 군 인력 및 장비, 헬기의 지원 등이 필요하다. 이와 같이 재난은 복잡하고 안전관리체제는 네트워크로 상호 연계되어 있으므로 안전관리 기관과 부서, 각종 조직 간 상호협조 및 조정, 정보교환 등은 매우 중요하다(안중석, 2004: 22-23).

다. 중요성에 대한 인식

안전관리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국민 개개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에게 재난이 찾아올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 또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판단할 때 정치가의 입장에서 보면 국민들이 민감하게 생각하는 국방, 교육, 경제, 과학 정책이나 주택, 일자리, 복지 관련 정책에 관심을 두게 되고, 안전에 관한 정책에 우선순위를 두기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안전에 대해서는 그 중요성에 비해 안전관리 조직의 편성, 우수인력의 배치, 충분한 예산의 할당, 장비 도입 등을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과 수많은 인명 및 재산 피해와 복구비용 등을 생각하면 결코 소홀히 할 수 없는 영역이다. 따라서 안전관리체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중요한 만큼 거기에 알맞은 조직의 편성, 전문인력의 양성과 유지, 충분한 예산 할당 등의 조치가 요구된다.

라. 비상설 조직을 포함한 통합안전관리체제의 운영

평시에 경제성의 원리에 입각하여 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한다고 할지라도 모든 재난에 대하여 완벽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모든 안전관리 조직을 평상시부터 항상 유지하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실제 재난이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제의 운영이 요구된다. 즉, 재난은 매우 복잡하므로 재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기관과 부서가 수행하는 여러 가지 기능을 통합 운영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상설 안전관리체제는 대형 재난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미흡하므로 재난이 발생하면 안전관리위원회, 재난안전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등 비상설 조직을 포함하여 통합안전관리체제를 구축하여야 한다. 그리고 비상설 안전관리체제가 능률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과 훈련이 요구된다.

4. 안전관리 역량강화 단계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자체역량 수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역량 업무 및 안전 허용단계에 대한 명확한 평가가 없는 상태에서는 자체 대응 역량을 넘어서는 재난 대응 매뉴얼, 안전관리계획 등을 수립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절차는 다음의 4단계로 구성할 수 있다.

외부환경 및 지역특성을 고려한 취약성 분석 단계가 선행되어야 하며, 이러한 영향분석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안전관리 평가항목을 제시하는 역량평가 지표화 단계, 안전관리 수행분석 및 평가를 통한 문제점을 찾고 취약성을 개선하는 역량평가 및 개선단계, 마지막으로 지역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면서 지역사회의 안전관리를 함께 고민하고 향상시킬 수 있는 지역사회 참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취약성 분석 단계는 지방자치단체 관할지역의 안전관리 외부환경의 취약성을 분석하는 단계이다. 외부환경 조건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안전역량확보의 한계점을 고려하여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자발적인 노력을 평가하기 위한 초기조건을 확보하는 것이다. 즉, 자연 환경적 조건(지형, 기후 등)에 따른 재난 취약성, 지역특성(도시, 농촌, 어촌 등)에 따른 재난 유형의 차이점, 지역의 경제활동(재정자립도 등)에 따른 예산 등 자원동원의 한계 등을 고려하여 자치단체가 강화해야 하는

안전관리역량 수준을 지표화 할 수 있다.

둘째, 안전관리 역량단계는 지역내부의 노력으로 확보되는 안전관리역량을 지표화하는 단계이다. 예방, 대비, 대응, 복구로 추진되는 일련의 안전관리절차에 따른 기본항목으로 지방자치단체 방재 담당자들이 지표항목을 작성하는데 용이하게 하며, 표준화된 기본항목을 제시함으로써 안전관리 실태의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는 단계이다. 또한 성과분석을 통하여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취약한 분야에 집중투자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지표화하여 효율적 안전관리역량 강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

셋째, 역량평가 및 개선단계는 다양한 차원에서 나타난 지표분석결과를 기본항목과 연계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는 단계이다. 하나의 안전관리 절차별 분석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다중 영향역량에 대하여 기본항목의 조합을 통하여 유사 외부환경 여건에 있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역량비교, 안전관리 절차별 역량에 대한 자체 분석 등 주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가시적 지표로 나타내는데 용이하게 하며, 다양한 관점으로 나타난 안전관리 실태를 빠르게 파악하여 보완, 개선할 수 있으며 또한 지역주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정보공개라는 안전관리 공시의 중요한 기능을 실현시킨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지역사회 참여단계는 지역주민이 해당 자치단체에서 공시한 내용을 이해하고 지역의 안전관리 정책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단계로 안전관리 공시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지방자치단체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행정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에 의한 자율적인 통제기능을 확보하는 것으로서, 안전관리가 무조건적인 중앙정부의 지원으로서는 한계가 있으며 지역의 자발적인 안전관리역량을 통하여 실현된다는 개념을 주민이 인식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해 안전관련 행정 및 정책 정보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결국, 주민참여를 통하여 지방자치단체 정책수행에 있어서 관심도와 만족도가 가장 저조한 안전관리분야의 정책우선순위를 상향시키는데 필수적인 절차라 할 수 있다.

5. 안전관리 역량지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지역의 취약성을 분석하여 개선사항을 도출하며 중장기적 관점에서 안전관리 정책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를 지역주민에게 공시함으로써 최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살펴본 대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자체역량 수준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역량 수준 분석을 위해 안전관리 역량 관련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Drabek(1987)은 안전관리 역량을 시민보호 전문가, 의사소통, 행정, 관리 및 조직, 개인 자질, 개인 간의 관계, 네트워크, 정책 선봉 기능 및 지식과 기술로 보았으며, Perry(1991)는 정치적 선두 기능(political forefront function), 지식과 기술, 그리고 관리와 같은 역량이 안전관리자에게 요구된다고 하였다. Sutkus, Adam, Cauley, Phyllis, Ugarte, Nicole (2011)등은 사회관리, 행정 및 조직, 지역사회참여, 대인적 관계, 네트워크, 의사소통, 정치적 선두 기능, 지식과 기술, 공공정책, 시민보호전문가로서 역량을 강조하였다.

미국의 국가재난대비활동지침(NPG: National Preparedness Guideline, 2007)은 역량 기반 기획(Capabilities-based Planning)으로, 대규모 재해를 가정한 국가계획시나리오를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연방정부나 주정부, 지자체 NGO, 민간단체 등 대응자의 레벨에 따라 과업을 제시하고(UTL: Universal Task List), 과업에 잠재된 Risk에 따라 달성목표를 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필요한 역량(TCL: Target Capabilities List)을 추출한다. 공통업무목록(UTL)은 국가적인 시나리오의 주요 사건들로부터 예방, 보호, 대응, 복구 등의 노력을 용이하게 하는 1,600여개의 고유 업무 목록을 의미하며, 그 업무는 각 기관들 간 주요 역량들의 발전을 지원하는 주요 업무이다.

NPG는 재난에 대비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목표역량목록(TCL)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것의 임무영역은 공통분야, 사전방지(예방, prevent)분야, 보호(protect)분야, 복구(recovery)분야, 대응(response)분야 등 총 5개 분야로 나뉜다. 공통분야는 모든 재

해재난에 대비하여 공통적으로 대비해야 할 목표역량을 통신, 커뮤니티 준비 및 참여, 계획수립, 위험 관리, 첩보/정보의 공유 및 전파 등 5개의 세부 분야로 나누어 정리하고 있으며 특히, ‘커뮤니티 준비 및 참여’와 ‘정보/정보 공유 및 전파’ 등에서 재난에 대해 중앙정부, 지방정부 등 정부부문과 민간단체 및 NGO 등 민간부문의 협업적 역할과 목표 역량을 자세히 기술하고 있다.

공통분야 외에는 목표역량의 분야를 재난단계인 예방, 보호, 대응, 복구 등 재난 단계별로 나누고 있으며 각각의 예상될 수 있는 모든 수준의 재해 및 재난에 대해 기술하고 있다. 각 분야별로 역량에는 계획수립, 조직과 리더십, 구성원, 장비와 시스템, 훈련, 연습·평가·교정 등과 같은 주요 구성요소들이 포함되어 대단히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서술되며 총 37개의 역량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미국 Morton County의 Emergency Management 부서(2012)는 재난관리자의 역할이나 역량을 행정, 관리, 개인 간의 관계, 네트워크, 공공정책, 지식과 기술이라고 제시하였다.

FEMA(2012)는 행정 및 관리, 의사소통, 대인적 관계, 네트워크, 지식과 기술, 공공정책, 정치적 선두 기능, 시민보호, 지역사회참여 등의 역할과 역량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UN ISDR(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국제 연합 재해경감 국제전략사무국)은 도시 스스로 재해에 강하고 지속가능한 도시만들기를 추구하는 UN 운동으로 「기후변화 및 재해에 강한 도시 만들기 Making Cities Resilient: My City is Getting Ready」 캠페인에서 재난관련 지방조직의 역량 강화를 강조하면서 필수 10개 점검항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 있다. 제도적·행정적 계획 구축, 재정 및 자원관리, 종합적인 재해위험 평가, 사회기반시설 보호 및 개선, 기반시설 보호(교육 및 의료시설), 재해를 고려한 시설기준 및 토지이용 계획 시행, 재해 위험 경감 교육·훈련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환경 및 생태계 보호, 효과적인 재해대비와 조기경보 및 대응체계 구축, 복구 및 지역사회 재건이 그것이다.

유병태, 오금호(2013)는 지역 재난 특성 파악, 재난관리 기반체계, 재난관리 계획

마련, 재난예방 사업 추진, 자원확보 관리, 상황관리 체계관리, 재난대응 계획수립, 교육훈련 정보공유, 성과목표 및 달성 등 9개의 대분류로 재난관리 업무유형에 따라 기능별로 구분하였으며, 대분류 지표항목을 중심으로 각 중분류 항목에 관련 소분류 항목을 두어 재난관리 실무자들이 자체점검 및 평가를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방기성(2014)은 권위있는 시민보호전문가, 지식과 기술, 공공정책, 정치적 선두 기능, 개인적 자질, 대인관계/기술, 커뮤니케이션, 행정 및 관리, 고위공무원/선출직 공무원과 조정, 네트워크, 미디어 관계, 지역사회 참여, 교육/훈련 등 13 항목을 재난관리 역량지표로 구성하였다. 각 역량변수가 내포하는 의미를 함께 정의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권위있는 시민보호전문가는 중재자 및 촉진자 공동체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의견차이를 조정, 타협할 줄 아는 능력, 전문적 직업 지식을 발휘 현/심사 중 법제에 대한 인식, 법률에 관한 전통, 재난관리 국가 및 지방 유관기관에 대한 업무지식 끈기, 과제완수에 대한 결단력, 법적 책임성, 국가/시민보호에 대한 의무책임, 민방위 공약을 표명, 효과적인 지도력 및 수행력 등이다. 둘째, 지식과 기술은 기술과 경험을 통해 더욱 증가한 지식적 전문성을 의미한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운영 효율성과 실험연구 연계 전문 지식 향상, 경험적 연구와 기술 및 경험 링크 운영 효율성을 통한 전문지식 등과 관리의 진보를 위해 평생교육을 추구하는 것이다. 셋째, 공공정책 역량은 공공정책과 정책결정에 대한 이해와 능력,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언 및 교육실시를 하는 것이다. 넷째, 정치적 선두기능은 정부 절차에 대한 이해, 전략적 사고 및 리더십, 높은 책임, 외교적 수완 및 정치적 예민함 등으로 정치 및 조직분석에 능통하다. 다섯째, 개인적 자질은 개방성, 타 의견에 대한 관용성, 순향성, 창의력, 상상력, 적응력, 스트레스 제어 능력, 혁신 및 기업가적 기술, 판단력, 직관력, 멀티태스킹 능력 및 체력 등이 해당된다. 여섯째, 대인관계 기술은 신입안전관리자의 멘토역할, 모든 재해지원활동에 연민, 확신, 효율성 및 편의성을 고루, 의사결정자와 성공적으로 관계를 맺고 지원을 받아내는 능력, 장려, 촉진 및 열의를 고무하는 능력, 대인관계 능력 등이다. 일곱째, 커뮤니케이션 역량은 시민과 공무원에게 기술정보를 표현, 전달하는 능력, 공공과 민간 대응조직과의

협조와 소통, 신속함, 정확성, 설득력, 순항적, 지속적, 커뮤니케이션 전략이 포함된다. 여덟째, 행정 및 관리 역량은 결과중심의 계획 시행, 다양성 관리, 다영역 및 다국적 인사관리, 부처 간 조정 및 의사결정, 내외부자원 정렬, 정부 간 조정, 글로벌 조정, 봉사활동 및 협업관할권간 조정, 재난통제단체 및 담당지역 지원 연락인, 응답조정자, 문제해결사 역할이다. 아홉째, 고위공무원, 선출직 공무원과 조정은 최고 행정책임자에게 직접보고, 타주요 부서장과 동일한 수준에서 긴밀한 협력, 훈련 및 연습의 필요성에 대한 최고관리자의 교육 및 후원요청 등으로 정의된다. 열 번째, 네트워킹은 정부간/조직간 구조 내에서 합의형성, 재난관리에 관련된 조직간 내부/외부조정 및 협력, 공공안전과 보안, 비즈니스 업무, 공무 및 정보업무, 정보시스템 관리, 통신기술, 법률업무 등과 관련한 네트워킹 역량이다. 열 한번째, 미디어 관계는 재난관리시스템에 미디어를 통합하는 것으로 공개된 정보의 정확성 보장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다. 열 두 번째, 지역사회 참여는 지역사회 위험을 계획 및 결정하고 지역 사회의 자원과 위기를 인지함으로써 탄력성 생성 및 관리, 개발 및 성장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여건에 적합한 위기수준을 선택하는 것을 돕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 및 훈련은 시장, 시장 대체 임원, 주요 이해관계자, 조직원 및 타 재난관리자를 교육훈련에 참여 및 홍보하고 훈련평가를 진행하는 것이다.

최상욱, 김서용(2013)은 우리나라 및 UN ISDR 재난관리 평가(점검)체계 비교와 분석을 통한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UN ISDR과 국내 안전관리실태 점검 지표를 공유할 수 있는 공통지표 또는 일반 모형을 개발하였고 설계된 진단.평가 모형을 활용하여 시·도 및 시·군·구 안전관리 실태점검(평가) 지표(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에서는 기존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 재난단계별 안전관리기준으로 설정된 점검지표의 구조를 개인역량, 조직(안전관리부서의 재난대비)역량, 네트워크(안전관리 네트워크)역량, 정부·지자체(안전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비)역량 등 역량의 수준별 구조로 전환하였다. 먼저 개인역량은 조직운영, 상황전파, 교육훈련을 의미한다. 조직의 역량은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과 재난대비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수립은 정책방향, 운영연속성 관리,

자원관리 계획, 재난홍보, 재난 예경보를 의미한다. 재난대비 물적·제도적 시스템 구축은 자원관리 데이터베이스, 재난 예경보, 지휘통제, 재난홍보를 의미한다. 다음으로 네트워크 역량은 주민의 재난대비역량 강화를 의미하는 네트워크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과 상호협력체계를 뜻하는 네트워크 구성원간 상호협력체계로 구분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부·지자체 역량은 기관장 리더십, 법·재정적 지원, 교육훈련 개발, 혁신과 같이 4가지로 구분된다. 여기에서 혁신이란 재난유형별 취약성 조사 및 중점관리대상의 실제 재난상황에서의 피해규모를 측정하는 것 혹은 추정 실적을 뜻한다.

김윤희, 박지환(2013)은 안전관리 역량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 법제도 역량, 인적 역량, 재정 역량, 관리운영 및 기술역량, 협업 역량과 같이 5가지를 제시하고 있으며 이러한 지표들 통해 조직의 안전관리 능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먼저 법제도 역량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훈령, 조례 등의 적시성을 의미하며 인적 역량은 재난관리 분야 업무 수행인원,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전문가 인력풀 보유여부를 말한다. 재정역량은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 구입, 재난관리 업무 수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보유 여부를 뜻하고 관리운영 및 기술역량은 재난관리 분야 정보시스템, 기술적 기기운용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등 기술적 역량과 일반적인 조직 운영 능력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협업역량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관리 부서와 타 부서, 외부 유관기관들과의 협력 및 교류를 의미한다.

〈표 2-1〉 선행연구 정리

구분	안전관리 역량 지표
Drabek(1987)	시민보호 전문가, 의사소통, 행정, 관리 및 조직, 개인 자질, 개인 간의 관계, 네트워크, 정책 선택 기능 및 지식과 기술
Perry(1991)	정치적 선두기능, 지식과 기술, 관리
Sutkus, Adam, Cauley, Phyllis, Ugarte, Nicole (2011)	사회관리, 행정 및 조직, 지역사회참여, 대인적 관계, 네트워크, 의사소통, 정치적 선두기능, 지식과 기술, 공공정책, 시민보호전문가
미국 국가재난대비 활동지침 (NPG: National Preparedness Guideline)	국가대비 비전과 국가전체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는 재난시나리오 설명, 공통관리업무목록(UTL), 목표역량목록(TCL)등으로 이루어짐
미국 Morton County의 Emergency Management부서 (2012)	행정, 관리, 개인 간의 관계, 네트워크, 공공정책, 지식과 기술
FEMA(2012)	행정 및 관리, 의사소통, 대인적 관계, 네트워크, 지식과 기술, 공공정책, 정치적 선두 기능, 시민보호, 지역사회참여 등의 역할과 역량
UN ISDR(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제도적·행정적 계획 구축, 재정 및 자원관리, 종합적인 재해위험 평가, 사회기반 시설 보호 및 개선, 기반시설 보호(교육 및 의료시설), 재해를 고려한 시설기준 및 토지이용 계획 시행, 재해 위험 경감 교육·훈련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환경 및 생태계 보호, 효과적인 재해대비와 조기경보 및 대응체계 구축, 복구 및 지역사회 재건이 그것이다.
유병태·오금호 (2013)	지역 재난 특성 파악, 재난관리 기반체계, 재난관리 계획마련, 재난예방 사업 추진, 자원확보 및 관리, 상황관리 체계관리, 재난대응 계획수립, 교육훈련 정보공유, 성과목표 및 달성 등 9개 대분류 항목을 제시하였고, 각 중분류 항목에 관련 소분류 항목을 둠
방기성 (2014)	권위있는 시민보호전문가, 지식과 기술, 공공정책, 정치적 선두 기능, 개인적 자질, 대인관계/기술, 커뮤니케이션, 행정 및 관리, 고위공무원/선출직 공무원과 조정, 네트워크, 미디어 관계, 지역사회 참여, 교육/훈련 등 13항목
최상옥·김서용 (2013)	개인, 조직(안전관리부서의 재난대비), 네트워크, 정부·지자체)안전관리책임기관의 재난대비등 역량의 수준별 구조를 제시
김윤희·박지환 (2013)	안전관리 역량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로서 법제도, 인적, 재정, 관리운영 및 기술, 협업을 제시

〈표 2-2〉 안전관리역량 점검지표와 관련 단계별 역량

구분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비고
Drabek(1987)	행정, 관리 및 조직	네트워킹, 개인자 질, 개인간의 관계	의사소통	시민보호 전문가, 지식과 기술, 정치 적 선두 기능	
Perry(1991)	관리			지식과 기술, 정치 적 선두 기능	
Sutkus, Adam, Cauley, Phyllis, Ugarte, Nicole (2011)	재난관리, 행정 및 조직	네트워킹, 대인적 관계, 지역사회 참 여	의사소통	시민보호 전문가, 지식과 기술, 공공 정책, 정치적 선두 기능	
미국 국가재난대비 활동지침 (NPG: National Preparedness Guideline)	조사분석, 정책방 향, 구조적·비구조 적대책, 조직의 운 영, 운영 연속성 관 리, 시행에 해당하 는 9개의 역량지표	주요 기반시설 보 호, 커뮤니티 준비 와 참여, 계획 수 립, 위험관리 등 4개의 역량지표	재난 예·경보활용, 상황전파, 재난홍 보, 지휘통제에 해 당하는 21개의 역 량지표	복구계획(경제와 커뮤니티 복구, 물·가스 등 복구, 지역피해 평가 등 3개의 역량 지표)	
미국 Morton County의 Emergency Management부서 (2012)	행정, 관리	네트워킹, 개인간 의 관계		지식과 기술, 공공 정책	
FEMA(2012)	행정 및 관리	대인적 관계, 네트 워킹, 지역사회 참 여	의사소통	지식과 기술, 공공 정책, 시민보호, 정 치적 선두 기능	
UN ISDR(UN International Strategy for Disaster Reduction)	제도적·행정적 계 획 구축, 재해를 고 려한 시설기준 및 토지이용 계획 시 행, 재해 위험 경감 교육·훈련 및 시민 안전의식 제고	재정 및 자원관리, 사회기반시설 보호 및 개선, 기반시설 보호(교육 및 의료 시설), 효과적인 재 해대비와 조기경보 및 대응체계 구축		종합적인 재해위험 평가, 복구 및 지역 사회 재건, 환경 및 생태계 복원	
유병태·오금호 (2013)	지역재난특성 파 악, 재난관리 기반 체계, 재난관리계 획 마련, 재난예방 사업추진	자원확보 관리, 재 난대응계획 수립, 교육훈련 정보공유 사업추진			성과 및 목 표달성

구분	예방	준비	대응	복구	비고
방기성 (2014)	행정 및 관리, 교육 훈련	개인적 자질, 대인 관계/기술, 네트워 킹, 지역사회 참여, 미디어 관계	커뮤니케이션, 고 위공무원/선출직 공무원과 조정	권위있는 시민보호 전문가, 지식과 기 술, 공공정책, 정치 적 선두 기능	
최상욱·김서용 (2013)	재난대비 목표 및 계획 수립, 재난대 비 물적·제도적 시 스템 구축	개인수준역량, 네 트워크 구성원간 상호협력 체계, 교 육훈련 개발	기관장 리더십, 법 재정적 지원,	네트워크 구성원의 지식기술 활용	혁신
김윤희·박지환 (2013)	지방자치단체의 재 난관리 업무 수행 을 위한 훈련·조례 등의 적시성, 일반 적인 조직운영 능 력	재난관리 업무 수 행을 위한 충분한 예산 보유 여부, 기 술적 기기운용 및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	대응복구장비, 구 호물자 구입, 재난 관리 분야 정보시 스템	담당 공무원의 전 문성, 전문가 인력 풀 보유여부	재 난 관 리 분야 업무 수행 인원

제3장 연구의 분석틀 및 조사설계

제1절 연구 분석틀
제2절 조사설계



제3장 연구의 분석틀 및 조사설계



제1절 연구 분석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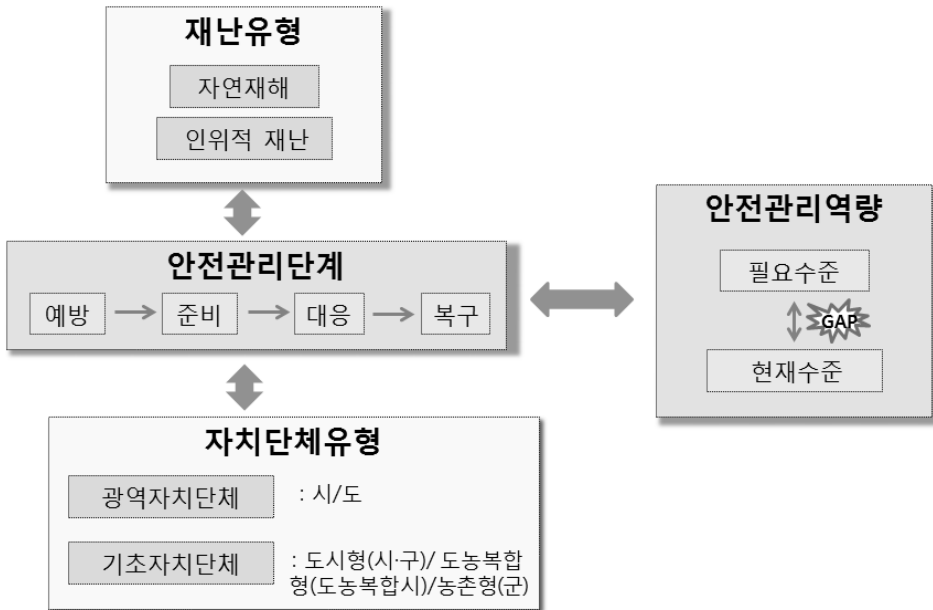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의 발생을 최대한 예방하고, 또한 재난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안전관리체계의 개선을 위한 역량강화 전략을 제시 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안전관련 이론 및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선행연구를 통하여 도출한 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하면 다음의 그림 3-1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이론 및 선행연구를 통해서 안전관리체계가 갖추어야 할 구조적 속성을 바탕으로 측정지표를 설정한다.

둘째, 예방, 준비, 대응, 복구 의 안전관리 단계별로 각 단계에서 필요한 역량과 현재 역량의 수준 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시급히 보완해야 할 역량분야를 파악한다. 이러한 역량은 자치단체를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고 기초의 경우 인구 도시형 자치단체(시·구), 도농복합형 자치단체(도농복합시) 농촌형 자치단체(군) 유형화하여 총 4개 유형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주로 안전총괄과)을 대상으로 역량을 진단하게 된다.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그림 3-1〉 본 연구의 분석틀



제2절 조사설계

지방자치단체 안전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재난 관리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중 안전총괄과¹⁾ 및 유사부서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규모는 전체 300명이며 조사방법은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전화조사하였고 표본추출은 광역과 기초를 구분하여 할당표집을 실시하였으며 광역자치단체는

1) 재난/재해의 예방, 대비, 대응, 복구 및 그 밖의 재난 및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재해를 방지하는 일을 담당하는 부서

100명, 기초자치단체는 도시와 농촌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초자치단체는 도시형(시/구), 농촌형(군), 도농복합형(도농복합시) 구분하되, 전체 2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과정에서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본이 지역별로, 자치단체 별로 편중되지 않도록 표본수는 광역자치단체는 최대 10명, 기초자치단체의 도시형(시/구)와 도농복합형은 최대 3명, 기초자치단체의 군은 최대 1명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표 3-1〉 표본 및 유형별 자치단체 수

		표본수	자치단체 수
광역자치단체		100명	17개
기초 자치단체	도시형(시/구)	100명	90개
	도농복합형(도농복합시)	60명	56개
	농촌형(군)	40명	83개
합		300명	246개

설문조사를 통해 측정하고자 하는 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문항 및 그 내용은 <표 3-2>와 같다.

〈표 3-2〉 재난관리 단계별 안전관리 역량 설문문항 및 내용

단계	안전관리역량	내용
예방	안전의식역량	안전절차를 준수하며 안전을 생활화하는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재난안전 분야 매뉴얼 보유 여부와 활용 정도,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련한 부서별 역할과 책임 명시 정도
	기관장리더십	기관장 태도 및 관리능력, 리더십, 정치적 지지도
	정책결정 역량	공공정책과 정책결정에 대한 이해와 능력, 정책결정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조언 및 교육실시를 하는 것
준비	교육 및 훈련역량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의 교육 훈련 이수 여부
	거버넌스 구축역량	지역사회 위험을 계획 및 결정하고 지역 사회의 자원과 위기를 인지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관리 참여체계구축역량
	협업 및 융합역량	재난대비 중앙부처와의 협업 정도, 공공과 민간 대응조직과의 협조와 소통 역량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	재난 관련 대응자원의 확보 및 비축 역량
	사회기반시설 보호역량	토지이용정책과 주택·사회기반시설을 위한 규제도입에 현재의 재해 위험과 예측되는 재해 위험을 고려하고 있는지 여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재난발생시 재난업무 담당부서 담당자의 책임과 역할에 대한 명확한 전문지식과 전문성 확보 역량
대응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 투입역량	대응복구비 확충 자금 및 물품비축 자금을 보유하고 유사시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역량
	상황전파 역량	신속한 상황판단을 위한 보고체계 구축역량
	조기경보역량	초기 경보센터에서 적절한 인원을 배치하고 있으며, 언제나 충분한 자원을 비축하고 있는지 여부
복구	회복력 (resilience)역량	재해로부터 심리사회적(심리적, 정서적) 피해를 입은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자원과 전문지식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
	복구계획역량	재해복구 사업의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확정 통보 및 예산확보 역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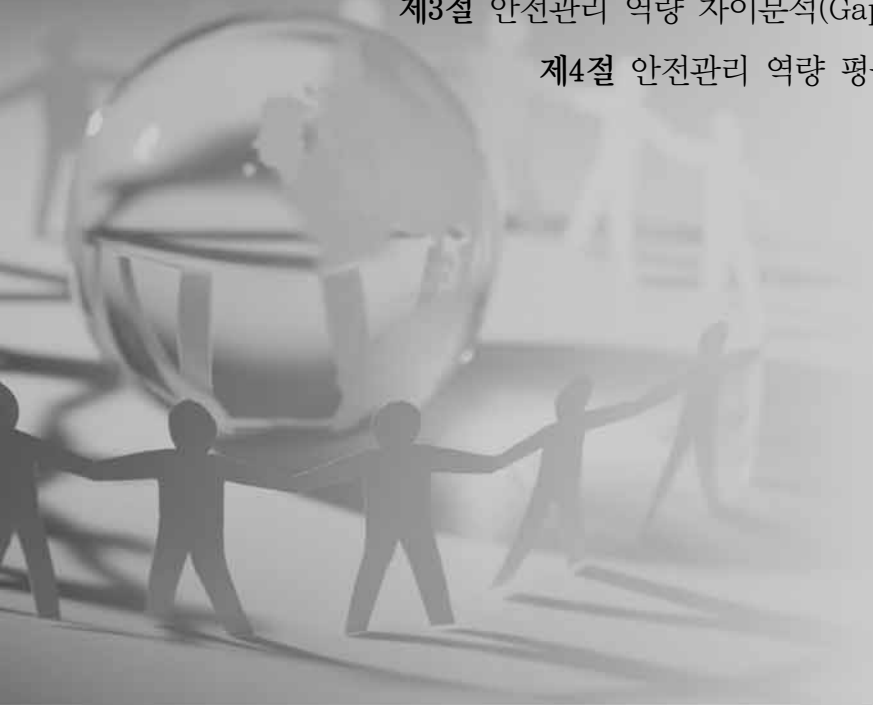
제4장 안전관리 역량 분석결과

제1절 응답자 기본현황

제2절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보유 수준 분석

제3절 안전관리 역량 차이분석(Gap Analysis) 결과

제4절 안전관리 역량 평균비교 분석 결과



제4장 안전관리 역량 분석결과



제1절 응답자 기본현황

응답자의 소속별 현황을 살펴보면 광역자치단체에 속한 응답자가 100명, 기초자치단체에 속한 응답자가 200명이다.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도시형(시/구), 농촌형(군), 도농복합형(도농복합시)로 구분하였는데 각각의 응답자는 100명, 60명 40명으로 나타났다.

〈표 4-1〉 응답자 소속별 현황

응답자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300	100	100	60	40

응답자의 직렬별 현황을 살펴보면 행정직이 180명, 기술직이 120명으로 나타났다.

〈표 4-2〉 응답자 직렬별 현황

응답자	행정직	기술직
300	180	120

담당 업무를 수행한 지 얼마나 되었느냐와 관련된 응답자 현황을 살펴보면,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가 161명으로 가장 많은 빈도를 보였으며, 경력이 2년 미만, 3년 미만, 3년 이상인 응답자 순으로 분포되었다.

〈표 4-3〉 응답자 담당 업무 담당 기간별 현황

응답자	1년 미만	1~2년 미만	2~3년 미만	3년 이상
300	161	77	24	38

제2절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보유 수준 분석

1.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

가. 전체적 관점에서 역량의 중요도에 관한 인식 수준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가지 역량 중요도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4-4〉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전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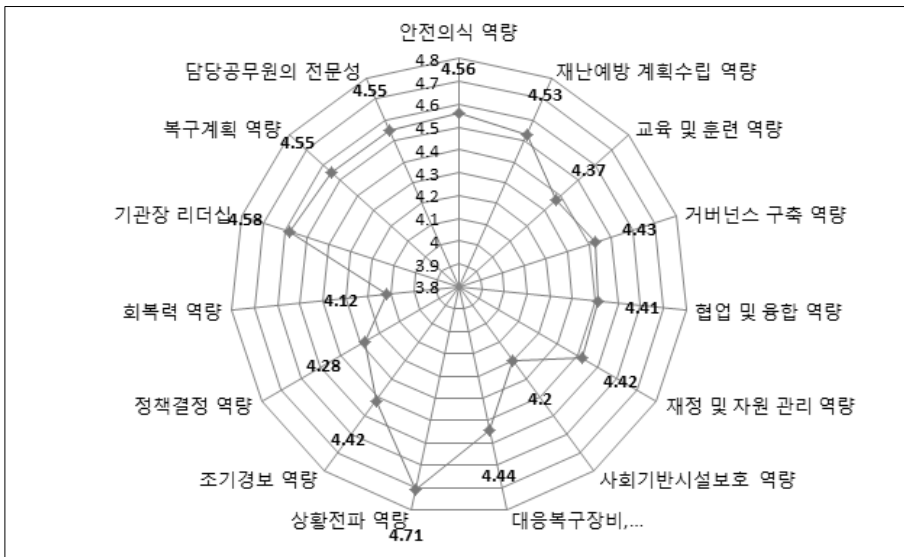
(단위: %)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안전의식 역량	0.0	0.3	9.7	24.0	66.0	4.56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0.0	1.0	8.3	27.0	63.7	4.53
교육 및 훈련 역량	0.0	1.7	13.3	31.0	54.0	4.37
거버넌스 구축 역량	0.0	1.0	13.0	28.0	58.0	4.43
협업 및 융합 역량	0.7	2.0	10.7	28.7	58.0	4.41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0.0	1.0	13.0	29.3	56.7	4.42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0.3	1.3	24.0	27.0	47.3	4.20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0.7	1.0	11.0	28.3	59.0	4.44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상황전파 역량	0.3	0.0	5.0	18.0	76.7	4.71
조기경보 역량	0.7	1.7	11.7	26.7	59.3	4.42
정책결정 역량	0.7	1.3	17.7	29.7	50.7	4.28
회복력 역량	0.7	3.7	22.0	30.7	43.0	4.12
기관장 리더십	0.0	0.3	9.0	23.0	67.7	4.58
복구계획 역량	0.0	0.0	8.3	28.0	63.7	4.55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0.3	0.0	9.0	25.3	65.3	4.55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와 관련하여 5점 기준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상황전파 역량이 가장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관장 리더십 역량, 안전의식 역량, 복구계획 역량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등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회복력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등은 상대적으로 중요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전체)



나. 특성별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

1) 안전의식 역량 중요도

안전의식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안전의식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안전의식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안전의식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안전의식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안전의식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3년 이상이 안전의식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 특성별 안전의식 역량 중요도

(단위: %)

안전의식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0	0.3	9.7	24.0	66.0	4.56
성별	남성	0.0	0.0	9.6	23.8	66.5	4.57
	여성	0.0	2.5	10.0	25.0	62.5	4.48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0.0	6.0	18.0	76.0	4.70
	기초자치단체	0.0	0.5	11.5	27.0	61.0	4.49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1.0	10.0	32.0	57.0	4.45
	도농복합형	0.0	0.0	13.3	25.0	61.7	4.48
	농촌형	0.0	0.0	12.5	17.5	70.0	4.58
직렬별	행정직	0.0	0.0	10.0	23.9	66.1	4.56
	기술직	0.0	0.8	9.2	24.2	65.8	4.55
직급별	5급 이상	0.0	0.0	7.1	10.7	82.1	4.75
	6급 이하	0.0	0.4	9.9	25.4	64.3	4.54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0.6	9.3	23.0	67.1	4.57
	1~2년 미만	0.0	0.0	13.0	23.4	63.6	4.51
	2~3년 미만	0.0	0.0	12.5	29.2	58.3	4.46
	3년 이상	0.0	0.0	2.6	26.3	71.1	4.68

2)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중요도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과 기술직은 동일하게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 특성별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중요도

(단위: %)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0	1.0	8.3	27.0	63.7	4.53
성별	남성	0.0	1.2	8.8	27.7	62.3	4.51
	여성	0.0	0.0	5.0	22.5	72.5	4.68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1.0	8.0	23.0	68.0	4.58
	기초자치단체	0.0	1.0	8.5	29.0	61.5	4.51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1.0	10.0	35.0	54.0	4.42
	도농복합형	0.0	1.7	10.0	20.0	68.3	4.55
	농촌형	0.0	0.0	2.5	27.5	70.0	4.68
직렬별	행정직	0.0	1.1	8.3	26.7	63.9	4.53
	기술직	0.0	0.8	8.3	27.5	63.3	4.53
직급별	5급 이상	0.0	3.6	7.1	10.7	78.6	4.64
	6급 이하	0.0	0.7	8.5	28.7	62.1	4.52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0.0	6.8	29.2	64.0	4.57
	1~2년 미만	0.0	1.3	10.4	24.7	63.6	4.51
	2~3년 미만	0.0	0.0	12.5	25.0	62.5	4.50
	3년 이상	0.0	5.3	7.9	23.7	63.2	4.45

3) 교육 및 훈련 역량 중요도

교육 및 훈련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교육 및 훈련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교육 및 훈련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7〉 특성별 교육 및 훈련 역량 중요도

(단위: %)

교육 및 훈련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0	1.7	13.3	31.0	54.0	4.37
성별	남성	0.0	1.9	11.5	30.8	55.8	4.40
	여성	0.0	0.0	25.0	32.5	42.5	4.18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2.0	14.0	34.0	50.0	4.32
	기초자치단체	0.0	1.5	13.0	29.5	56.0	4.40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1.0	20.0	34.0	45.0	4.23
	도농복합형	0.0	3.3	8.3	25.0	63.3	4.48
	농촌형	0.0	0.0	2.5	25.0	72.5	4.70
직렬별	행정직	0.0	1.7	12.2	31.1	55.0	4.39
	기술직	0.0	1.7	15.0	30.8	52.5	4.34
직급별	5급 이상	0.0	3.6	0.0	28.6	67.9	4.61
	6급 이하	0.0	1.5	14.7	31.3	52.6	4.35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0.6	11.2	36.0	52.2	4.40
	1~2년 미만	0.0	1.3	16.9	22.1	59.7	4.40
	2~3년 미만	0.0	4.2	20.8	33.3	41.7	4.13
	3년 이상	0.0	5.3	10.5	26.3	57.9	4.37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교육 및 훈련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교육 및 훈련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교육 및 훈련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2년 미만이 교

육 및 훈련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 거버넌스 구축 역량 중요도

거버넌스 구축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거버넌스 구축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거버넌스 구축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 특성별 거버넌스 구축 역량 중요도

(단위: %)

거버넌스 구축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0	1.0	13.0	28.0	58.0	4.43
성별	남성	0.0	1.2	13.8	27.7	57.3	4.41
	여성	0.0	0.0	7.5	30.0	62.5	4.55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0.0	8.0	30.0	62.0	4.54
	기초자치단체	0.0	1.5	15.5	27.0	56.0	4.38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3.0	21.0	31.0	45.0	4.18
	도농복합형	0.0	0.0	11.7	30.0	58.3	4.47
	농촌형	0.0	0.0	7.5	12.5	80.0	4.73
직렬별	행정직	0.0	0.0	11.7	23.3	65.0	4.53
	기술직	0.0	2.5	15.0	35.0	47.5	4.28
직급별	5급 이상	0.0	3.6	10.7	17.9	67.9	4.50
	6급 이하	0.0	0.7	13.2	29.0	57.0	4.42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1.2	13.0	26.7	59.0	4.43
	1~2년 미만	0.0	1.3	15.6	24.7	58.4	4.40
	2~3년 미만	0.0	0.0	12.5	29.2	58.3	4.46
	3년 이상	0.0	0.0	7.9	39.5	52.6	4.45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거버넌스 구축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거버넌스 구축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거버넌스 구축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2~3년 미만인 거버넌스 구축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협업 및 융합 역량 중요도

협업 및 융합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협업 및 융합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협업 및 융합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 특성별 협업 및 융합 구축 역량 중요도

(단위: %)

협업 및 융합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7	2.0	10.7	28.7	58.0	4.41
성별	남성	0.8	2.3	11.5	28.5	56.9	4.38
	여성	0.0	0.0	5.0	30.0	65.0	4.60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0.0	4.0	31.0	65.0	4.61
	기초자치단체	1.0	3.0	14.0	27.5	54.5	4.32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2.0	5.0	19.0	31.0	43.0	4.08
	도농복합형	0.0	1.7	13.3	28.3	56.7	4.40
	농촌형	0.0	0.0	2.5	17.5	80.0	4.78
직렬별	행정직	0.6	1.7	10.0	27.2	60.6	4.46
	기술직	0.8	2.5	11.7	30.8	54.2	4.35
직급별	5급 이상	0.0	3.6	7.1	28.6	60.7	4.46
	6급 이하	0.7	1.8	11.0	28.7	57.7	4.41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2	0.0	11.8	30.4	56.5	4.41
	1~2년 미만	0.0	6.5	11.7	22.1	59.7	4.35
	2~3년 미만	0.0	4.2	12.5	25.0	58.3	4.38
	3년 이상	0.0	0.0	2.6	36.8	60.5	4.58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협업 및 융합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협업 및 융합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협업 및 융합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3년 이상이 협업 및 융합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6)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중요도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3년 이상이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0〉 특성별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중요도

(단위: %)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0	1.0	13.0	29.3	56.7	4.42
성별	남성	0.0	1.2	13.5	28.1	57.3	4.42
	여성	0.0	0.0	10.0	37.5	52.5	4.4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0.0	11.0	27.0	62.0	4.51
	기초자치단체	0.0	1.5	14.0	30.5	54.0	4.37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2.0	20.0	35.0	43.0	4.19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도농복합형	0.0	1.7	13.3	26.7	58.3	4.42
	농촌형	0.0	0.0	0.0	25.0	75.0	4.75
직렬별	행정직	0.0	0.6	11.1	29.4	58.9	4.47
	기술직	0.0	1.7	15.8	29.2	53.3	4.34
직급별	5급 이상	0.0	0.0	21.4	10.7	67.9	4.46
	6급 이하	0.0	1.1	12.1	31.3	55.5	4.41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0.0	11.8	33.5	54.7	4.43
	1~2년 미만	0.0	2.6	14.3	20.8	62.3	4.43
	2~3년 미만	0.0	4.2	16.7	29.2	50.0	4.25
	3년 이상	0.0	0.0	13.2	28.9	57.9	4.45

7)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중요도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표 4-11〉 특성별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중요도

(단위: %)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3	1.3	24.0	27.0	47.3	4.20
성별	남성	0.4	1.5	24.2	28.5	45.4	4.17
	여성	0.0	0.0	22.5	17.5	60.0	4.38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1.0	14.0	29.0	56.0	4.40
	기초자치단체	0.5	1.5	29.0	26.0	43.0	4.10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1.0	1.0	28.0	30.0	40.0	4.07
	도농복합형	0.0	1.7	36.7	20.0	41.7	4.02
	농촌형	0.0	2.5	20.0	25.0	52.5	4.28
직렬별	행정직	0.0	1.7	21.7	26.1	50.6	4.26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기술직	0.8	0.8	27.5	28.3	42.5	4.11
직급별	5급 이상	3.6	7.1	17.9	21.4	50.0	4.07
	6급 이하	0.0	0.7	24.6	27.6	47.1	4.21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6	0.6	23.0	29.2	46.6	4.20
	1~2년 미만	0.0	1.3	27.3	20.8	50.6	4.21
	2~3년 미만	0.0	4.2	20.8	33.3	41.7	4.13
	3년 이상	0.0	2.6	23.7	26.3	47.4	4.18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2년 미만이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8)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중요도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2년 미만이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2〉 특성별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중요도

(단위: %)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7	1.0	11.0	28.3	59.0	4.44
성별	남성	0.8	1.2	11.9	28.5	57.7	4.41
	여성	0.0	0.0	5.0	27.5	67.5	4.6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1.0	7.0	30.0	62.0	4.53
	기초자치단체	1.0	1.0	13.0	27.5	57.5	4.40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2.0	2.0	18.0	36.0	42.0	4.14
	도농복합형	0.0	0.0	13.3	20.0	66.7	4.53
	농촌형	0.0	0.0	0.0	17.5	82.5	4.83
직렬별	행정직	0.6	0.6	10.6	27.2	61.1	4.48
	기술직	0.8	1.7	11.7	30.0	55.8	4.38
직급별	5급 이상	3.6	3.6	3.6	17.9	71.4	4.50
	6급 이하	0.4	0.7	11.8	29.4	57.7	4.43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2	0.0	11.8	29.2	57.8	4.42
	1~2년 미만	0.0	1.3	10.4	23.4	64.9	4.52
	2~3년 미만	0.0	4.2	12.5	29.2	54.2	4.33
	3년 이상	0.0	2.6	7.9	34.2	55.3	4.42

9) 상황전파 역량 중요도

상황전파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상황전파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상황전파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상황전파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상황전파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상황전파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3년 이상이 상황전파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3〉 특성별 상황전파 역량 중요도

(단위: %)

상황전파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3	0.0	5.0	18.0	76.7	4.71
성별	남성	0.4	0.0	5.0	18.8	75.8	4.70
	여성	0.0	0.0	5.0	12.5	82.5	4.78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1.0	0.0	4.0	13.0	82.0	4.75
	기초자치단체	0.0	0.0	5.5	20.5	74.0	4.69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0.0	8.0	27.0	65.0	4.57
	도농복합형	0.0	0.0	5.0	16.7	78.3	4.73
	농촌형	0.0	0.0	0.0	10.0	90.0	4.90
직렬별	행정직	0.0	0.0	2.2	17.8	80.0	4.78
	기술직	0.8	0.0	9.2	18.3	71.7	4.60
직급별	5급 이상	0.0	0.0	10.7	3.6	85.7	4.75
	6급 이하	0.4	0.0	4.4	19.5	75.7	4.70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0.0	4.3	21.1	74.5	4.70
	1~2년 미만	1.3	0.0	6.5	11.7	80.5	4.70
	2~3년 미만	0.0	0.0	8.3	16.7	75.0	4.67
	3년 이상	0.0	0.0	2.6	18.4	78.9	4.76

10) 조기경보 역량 중요도

조기경보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조기경보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조기경보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조기경보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조기경보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조기경보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2~3년 미만인 조기경보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4〉 특성별 조기경보 역량 중요도

(단위: %)

조기경보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7	1.7	11.7	26.7	59.3	4.42
성별	남성	0.8	1.9	12.7	26.2	58.5	4.40
	여성	0.0	0.0	5.0	30.0	65.0	4.60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1.0	8.0	30.0	61.0	4.51
	기초자치단체	1.0	2.0	13.5	25.0	58.5	4.38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2.0	3.0	17.0	28.0	50.0	4.21
	도농복합형	0.0	1.7	16.7	21.7	60.0	4.40
	농촌형	0.0	0.0	0.0	22.5	77.5	4.78
직렬별	행정직	0.6	0.6	9.4	28.3	61.1	4.49
	기술직	0.8	3.3	15.0	24.2	56.7	4.33
직급별	5급 이상	3.6	0.0	17.9	10.7	67.9	4.39
	6급 이하	0.4	1.8	11.0	28.3	58.5	4.43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2	1.9	8.1	32.9	55.9	4.40
	1~2년 미만	0.0	1.3	19.5	19.5	59.7	4.38
	2~3년 미만	0.0	4.2	8.3	12.5	75.0	4.58
	3년 이상	0.0	0.0	13.2	23.7	63.2	4.50

11) 정책결정 역량 중요도

정책결정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정책결정 역량이 더 중요

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정책결정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5〉 특성별 정책결정 역량 중요도

(단위: %)

정책결정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7	1.3	17.7	29.7	50.7	4.28
성별	남성	0.8	1.5	17.3	29.6	50.8	4.28
	여성	0.0	0.0	20.0	30.0	50.0	4.30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2.0	15.0	28.0	55.0	4.36
	기초자치단체	1.0	1.0	19.0	30.5	48.5	4.25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2.0	1.0	26.0	36.0	35.0	4.01
	도농복합형	0.0	1.7	15.0	28.3	55.0	4.37
	농촌형	0.0	0.0	7.5	20.0	72.5	4.65
직렬별	행정직	0.6	1.1	17.2	28.9	52.2	4.31
	기술직	0.8	1.7	18.3	30.8	48.3	4.24
직급별	5급 이상	0.0	3.6	10.7	17.9	67.9	4.50
	6급 이하	0.7	1.1	18.4	30.9	48.9	4.26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2	0.0	19.3	31.7	47.8	4.25
	1~2년 미만	0.0	1.3	20.8	22.1	55.8	4.32
	2~3년 미만	0.0	4.2	12.5	41.7	41.7	4.21
	3년 이상	0.0	5.3	7.9	28.9	57.9	4.39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정책결정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정책결정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정책결정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3년 이상이 정책결정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 회복력 역량 중요도

회복력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회복력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회복력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6〉 특성별 회복력 역량 중요도

(단위: %)

회복력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7	3.7	22.0	30.7	43.0	4.12
성별	남성	0.8	4.2	22.3	31.2	41.5	4.08
	여성	0.0	0.0	20.0	27.5	52.5	4.3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1.0	16.0	35.0	48.0	4.30
	기초자치단체	1.0	5.0	25.0	28.5	40.5	4.03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2.0	6.0	27.0	34.0	31.0	3.86
	도농복합형	0.0	6.7	31.7	25.0	36.7	3.92
	농촌형	0.0	0.0	10.0	20.0	70.0	4.60
직렬별	행정직	0.6	3.9	20.0	30.6	45.0	4.16
	기술직	0.8	3.3	25.0	30.8	40.0	4.06
직급별	5급 이상	3.6	3.6	17.9	25.0	50.0	4.14
	6급 이하	0.4	3.7	22.4	31.3	42.3	4.11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2	3.7	20.5	31.7	42.9	4.11
	1~2년 미만	0.0	2.6	24.7	29.9	42.9	4.13
	2~3년 미만	0.0	8.3	20.8	29.2	41.7	4.04
	3년 이상	0.0	2.6	23.7	28.9	44.7	4.16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회복력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회복력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회복력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3년 이상이 회복력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3) 기관장리더십 역량 중요도

기관장리더십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기관장리더십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관장리더십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7〉 특성별 기관장리더십 역량 중요도

(단위: %)

기관장리더십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0	0.3	9.0	23.0	67.7	4.58
성별	남성	0.0	0.4	8.8	21.9	68.8	4.59
	여성	0.0	0.0	10.0	30.0	60.0	4.50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1.0	11.0	25.0	63.0	4.50
	기초자치단체	0.0	0.0	8.0	22.0	70.0	4.62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0.0	9.0	29.0	62.0	4.53
	도농복합형	0.0	0.0	11.7	18.3	70.0	4.58
	농촌형	0.0	0.0	0.0	10.0	90.0	4.90
직렬별	행정직	0.0	0.0	6.7	22.8	70.6	4.64
	기술직	0.0	0.8	12.5	23.3	63.3	4.49
직급별	5급 이상	0.0	0.0	3.6	14.3	82.1	4.79
	6급 이하	0.0	0.4	9.6	23.9	66.2	4.56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0.0	7.5	22.4	70.2	4.63
	1~2년 미만	0.0	0.0	11.7	19.5	68.8	4.57
	2~3년 미만	0.0	0.0	16.7	20.8	62.5	4.46
	3년 이상	0.0	2.6	5.3	34.2	57.9	4.47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기관장리더십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기관장리더십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기관장리더십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기관장리더십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복구계획 역량 중요도

복구계획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복구계획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복구계획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복구계획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복구계획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복구계획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복구계획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8〉 특성별 복구계획 역량 중요도

(단위: %)

복구계획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0	0.0	8.3	28.0	63.7	4.55
성별	남성	0.0	0.0	8.1	28.1	63.8	4.56
	여성	0.0	0.0	10.0	27.5	62.5	4.5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0.0	7.0	27.0	66.0	4.59
	기초자치단체	0.0	0.0	9.0	28.5	62.5	4.54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0.0	13.0	35.0	52.0	4.39
	도농복합형	0.0	0.0	8.3	21.7	70.0	4.62
	농촌형	0.0	0.0	0.0	22.5	77.5	4.78
직렬별	행정직	0.0	0.0	7.2	26.1	66.7	4.59
	기술직	0.0	0.0	10.0	30.8	59.2	4.49
직급별	5급 이상	0.0	0.0	3.6	14.3	82.1	4.79
	6급 이하	0.0	0.0	8.8	29.4	61.8	4.53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0.0	5.6	28.6	65.8	4.60
	1~2년 미만	0.0	0.0	13.0	23.4	63.6	4.51
	2~3년 미만	0.0	0.0	16.7	29.2	54.2	4.38
	3년 이상	0.0	0.0	5.3	34.2	60.5	4.55

15)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중요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중요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19〉 특성별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중요도

(단위: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중요도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3	0.0	9.0	25.3	65.3	4.55
성별	남성	0.4	0.0	8.8	25.8	65.0	4.55
	여성	0.0	0.0	10.0	22.5	67.5	4.58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0.0	0.0	4.0	20.0	76.0	4.72
	기초자치단체	0.5	0.0	11.5	28.0	60.0	4.47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1.0	0.0	18.0	34.0	47.0	4.26
	도농복합형	0.0	0.0	8.3	25.0	66.7	4.58
	농촌형	0.0	0.0	0.0	17.5	82.5	4.83
직렬별	행정직	0.0	0.0	7.2	26.1	66.7	4.59
	기술직	0.8	0.0	11.7	24.2	63.3	4.49
직급별	5급 이상	0.0	0.0	7.1	14.3	78.6	4.71
	6급 이하	0.4	0.0	9.2	26.5	64.0	4.54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6	0.0	8.7	24.2	66.5	4.56
	1~2년 미만	0.0	0.0	11.7	27.3	61.0	4.49
	2~3년 미만	0.0	0.0	4.2	33.3	62.5	4.58
	3년 이상	0.0	0.0	7.9	21.1	71.1	4.63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이 더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

에 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3년 이상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현재 안전관리 역량의 보유 수준

가. 전체적 관점에서 역량의 보유 수준에 관한 인식 수준

현재 안전관리 역량의 보유 수준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5 가지 역량 보유 측면에서 대체적으로 ‘보통’, ‘높다’, ‘매우 높다’고 인식하고 있는 비율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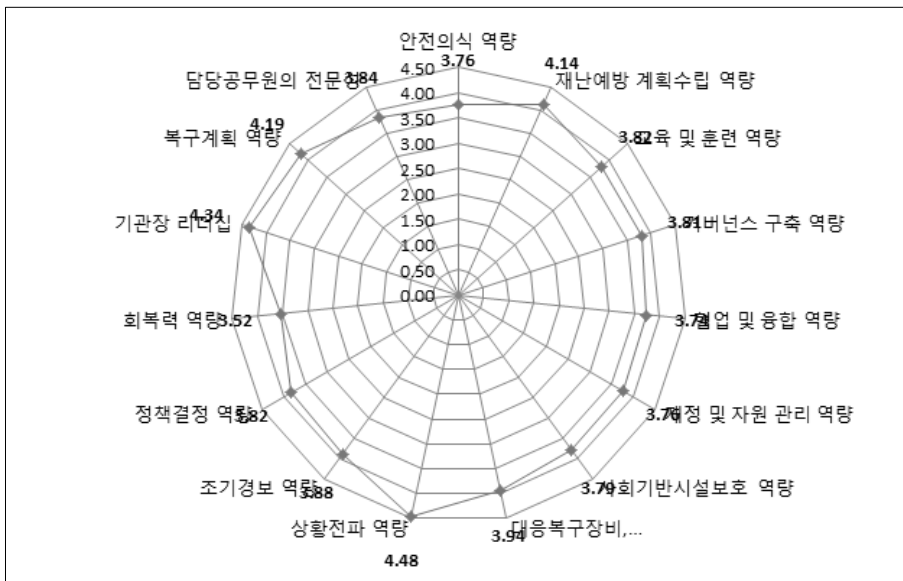
〈표 4-20〉 현재 안전관리 역량 보유(전체)

(단위: %)

현재 안전관리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안전의식 역량	1.0	6.7	33.7	33.0	25.7	3.76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0.3	2.7	22.7	31.0	43.3	4.14
교육 및 훈련 역량	1.0	6.7	29.3	35.3	27.7	3.82
거버넌스 구축 역량	2.7	3.7	31.3	34.3	28.0	3.81
협업 및 융합 역량	3.3	6.0	31.7	31.3	27.7	3.74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2.3	7.0	28.7	36.0	26.0	3.76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2.3	6.0	33.3	26.7	31.7	3.79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3.3	5.0	24.3	29.0	38.3	3.94
상황전파 역량	1.0	0.7	11.7	23.0	63.7	4.48
조기경보 역량	1.3	7.0	28.7	28.0	35.0	3.88
정책결정 역량	3.7	4.7	30.3	28.7	32.7	3.82
회복력 역량	5.3	9.3	37.3	24.3	23.7	3.52
기관장 리더십	2.0	2.7	14.0	22.0	59.3	4.34
복구계획 역량	1.7	1.7	17.3	34.3	45.0	4.19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2.3	3.0	31.3	35.0	28.3	3.84

현재 안전관리 역량 보유와 관련하여 5점 기준 평균값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 <그림 4-2>와 같다.

<그림 4-2> 현재 안전관리 역량 보유(전체)



상대적으로 상황전파 역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관장 리더십 역량, 복구계획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등의 순으로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현재 회복력 역량을 가장 보유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협업 및 융합 역량, 안전의식 역량과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등의 순으로 역량을 보유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나. 특성별 현재 안전관리 역량 보유

1) 현재 안전의식 역량 보유

현재 안전의식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안전의식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안전의식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21〉 특성별 현재 안전의식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안전의식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1.0	6.7	33.7	33.0	25.7	3.76
성별	남성	1.2	6.9	31.5	33.1	27.3	3.78
	여성	0.0	5.0	47.5	32.5	15.0	3.58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3.0	6.0	30.0	39.0	22.0	3.71
	기초자치단체	0.0	7.0	35.5	30.0	27.5	3.78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9.0	45.0	33.0	13.0	3.50
	도농복합형	0.0	5.0	28.3	30.0	36.7	3.98
	농촌형	0.0	5.0	22.5	22.5	50.0	4.18
직렬별	행정직	0.0	6.7	36.7	31.7	25.0	3.75
	기술직	2.5	6.7	29.2	35.0	26.7	3.77
직급별	5급 이상	0.0	17.9	25.0	35.7	21.4	3.61
	6급 이하	1.1	5.5	34.6	32.7	26.1	3.77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6.8	35.4	31.1	26.7	3.78
	1~2년 미만	2.6	6.5	31.2	33.8	26.0	3.74
	2~3년 미만	0.0	4.2	54.2	25.0	16.7	3.54
	3년 이상	2.6	7.9	18.4	44.7	26.3	3.84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안전의식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 안전의식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안전의식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3년 이상이 안전의식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2) 현재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보유

현재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2~3년 미만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22〉 특성별 현재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0.3	2.7	22.7	31.0	43.3	4.14
성별	남성	0.4	2.7	20.4	31.9	44.6	4.18
	여성	0.0	2.5	37.5	25.0	35.0	3.9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1.0	3.0	29.0	32.0	35.0	3.97
	기초자치단체	0.0	2.5	19.5	30.5	47.5	4.23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2.0	22.0	32.0	44.0	4.18
	도농복합형	0.0	3.3	18.3	30.0	48.3	4.23
	농촌형	0.0	2.5	15.0	27.5	55.0	4.35
직렬별	행정직	0.0	3.3	25.0	32.2	39.4	4.08
	기술직	0.8	1.7	19.2	29.2	49.2	4.24
직급별	5급 이상	0.0	3.6	17.9	28.6	50.0	4.25
	6급 이하	0.4	2.6	23.2	31.3	42.6	4.13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2.5	19.3	31.1	47.2	4.23
	1~2년 미만	1.3	2.6	24.7	33.8	37.7	4.04
	2~3년 미만	0.0	0.0	25.0	25.0	50.0	4.25
	3년 이상	0.0	5.3	31.6	28.9	34.2	3.92

3) 현재 교육 및 훈련 역량 보유

현재 교육 및 훈련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교육 및 훈련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교육 및 훈련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교육 및 훈련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교육 및 훈련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교육 및 훈련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교육 및 훈련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23〉 특성별 현재 교육 및 훈련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교육 및 훈련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1.0	6.7	29.3	35.3	27.7	3.82
성별	남성	1.2	6.5	28.8	35.4	28.1	3.83
	여성	0.0	7.5	32.5	35.0	25.0	3.78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3.0	8.0	26.0	38.0	25.0	3.74
	기초자치단체	0.0	6.0	31.0	34.0	29.0	3.86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5.0	35.0	34.0	26.0	3.81
	도농복합형	0.0	8.3	28.3	31.7	31.7	3.87
	농촌형	0.0	5.0	25.0	37.5	32.5	3.98
직렬별	행정직	0.0	5.6	31.7	36.1	26.7	3.84
	기술직	2.5	8.3	25.8	34.2	29.2	3.79
직급별	5급 이상	0.0	7.1	21.4	39.3	32.1	3.96
	6급 이하	1.1	6.6	30.1	34.9	27.2	3.81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0	6.2	28.0	34.2	31.7	3.91
	1~2년 미만	3.9	7.8	31.2	35.1	22.1	3.64
	2~3년 미만	0.0	4.2	41.7	33.3	20.8	3.71
	3년 이상	0.0	7.9	23.7	42.1	26.3	3.87

4) 현재 거버넌스 구축 역량 보유

현재 거버넌스 구축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거버넌스 구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거버넌스 구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거버넌스 구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 거버넌스 구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거버넌스 구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거버넌스 구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24〉 특성별 현재 거버넌스 구축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거버넌스 구축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2.7	3.7	31.3	34.3	28.0	3.81
성별	남성	3.1	3.5	31.2	34.2	28.1	3.81
	여성	0.0	5.0	32.5	35.0	27.5	3.85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4.0	4.0	28.0	38.0	26.0	3.78
	기초자치단체	2.0	3.5	33.0	32.5	29.0	3.83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2.0	4.0	36.0	38.0	20.0	3.70
	도농복합형	3.3	5.0	28.3	31.7	31.7	3.83
	농촌형	0.0	0.0	32.5	20.0	47.5	4.15
직렬별	행정직	1.7	4.4	33.3	34.4	26.1	3.79
	기술직	4.2	2.5	28.3	34.2	30.8	3.85
직급별	5급 이상	3.6	3.6	32.1	32.1	28.6	3.79
	6급 이하	2.6	3.7	31.3	34.6	27.9	3.82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2	2.5	28.0	36.0	32.3	3.96
	1~2년 미만	5.2	6.5	35.1	32.5	20.8	3.57
	2~3년 미만	4.2	0.0	37.5	33.3	25.0	3.75
	3년 이상	2.6	5.3	34.2	31.6	26.3	3.74

5) 현재 협업 및 융합 역량 보유

현재 협업 및 융합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협업 및 융합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협업 및 융합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협업 및 융합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 협업 및 융합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협업 및 융합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3년 이상이 협업 및 융합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25〉 특성별 현재 협업 및 융합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협업 및 융합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3.3	6.0	31.7	31.3	27.7	3.74
성별	남성	3.5	6.2	31.5	30.4	28.5	3.74
	여성	2.5	5.0	32.5	37.5	22.5	3.7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6.0	2.0	28.0	33.0	31.0	3.81
	기초자치단체	2.0	8.0	33.5	30.5	26.0	3.71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4.0	9.0	39.0	28.0	20.0	3.51
	도농복합형	0.0	6.7	33.3	31.7	28.3	3.82
	농촌형	0.0	7.5	20.0	35.0	37.5	4.03
직렬별	행정직	1.1	6.7	35.0	32.2	25.0	3.73
	기술직	6.7	5.0	26.7	30.0	31.7	3.75
직급별	5급 이상	0.0	7.1	35.7	28.6	28.6	3.79
	6급 이하	3.7	5.9	31.3	31.6	27.6	3.74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2.5	5.6	29.8	31.1	31.1	3.83
	1~2년 미만	6.5	9.1	31.2	32.5	20.8	3.52
	2~3년 미만	0.0	8.3	41.7	20.8	29.2	3.71
	3년 이상	2.6	0.0	34.2	36.8	26.3	3.84

6) 현재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보유

현재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26〉 특성별 현재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2.3	7.0	28.7	36.0	26.0	3.76
성별	남성	2.7	6.9	26.5	36.5	27.3	3.79
	여성	0.0	7.5	42.5	32.5	17.5	3.60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4.0	8.0	25.0	35.0	28.0	3.75
	기초자치단체	1.5	6.5	30.5	36.5	25.0	3.77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3.0	7.0	35.0	35.0	20.0	3.62
	도농복합형	0.0	5.0	23.3	50.0	21.7	3.88
	농촌형	0.0	7.5	30.0	20.0	42.5	3.98
직렬별	행정직	1.1	8.9	32.2	35.6	22.2	3.69
	기술직	4.2	4.2	23.3	36.7	31.7	3.88
직급별	5급 이상	3.6	14.3	25.0	28.6	28.6	3.64
	6급 이하	2.2	6.3	29.0	36.8	25.7	3.78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2	6.2	28.0	35.4	29.2	3.85
	1~2년 미만	5.2	7.8	31.2	33.8	22.1	3.60
	2~3년 미만	0.0	8.3	33.3	37.5	20.8	3.71
	3년 이상	2.6	7.9	23.7	42.1	23.7	3.76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7) 현재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 보유

현재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남성에 비해 여성이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27〉 특성별 현재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2.3	6.0	33.3	26.7	31.7	3.79
성별	남성	2.3	6.2	33.1	26.9	31.5	3.79
	여성	2.5	5.0	35.0	25.0	32.5	3.80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5.0	4.0	27.0	28.0	36.0	3.86
	기초자치단체	1.0	7.0	36.5	26.0	29.5	3.76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2.0	8.0	36.0	29.0	25.0	3.67
	도농복합형	0.0	6.7	41.7	20.0	31.7	3.77
	농촌형	0.0	5.0	30.0	27.5	37.5	3.98
직렬별	행정직	1.1	6.1	33.9	27.2	31.7	3.82
	기술직	4.2	5.8	32.5	25.8	31.7	3.75
직급별	5급 이상	3.6	10.7	32.1	25.0	28.6	3.64
	6급 이하	2.2	5.5	33.5	26.8	32.0	3.81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9	5.0	30.4	31.1	31.7	3.86
	1~2년 미만	3.9	7.8	36.4	19.5	32.5	3.69
	2~3년 미만	0.0	8.3	37.5	29.2	25.0	3.71
	3년 이상	2.6	5.3	36.8	21.1	34.2	3.79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8) 현재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보유

현재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28〉 특성별 현재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3.3	5.0	24.3	29.0	38.3	3.94
성별	남성	2.7	5.4	24.2	30.4	37.3	3.94
	여성	7.5	2.5	25.0	20.0	45.0	3.9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5.0	6.0	20.0	35.0	34.0	3.87
	기초자치단체	2.5	4.5	26.5	26.0	40.5	3.98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4.0	8.0	30.0	27.0	31.0	3.73
	도농복합형	0.0	0.0	26.7	21.7	51.7	4.25
	농촌형	2.5	2.5	17.5	30.0	47.5	4.18
직렬별	행정직	2.2	2.8	26.7	27.8	40.6	4.02
	기술직	5.0	8.3	20.8	30.8	35.0	3.83
직급별	5급 이상	3.6	17.9	17.9	28.6	32.1	3.68
	6급 이하	3.3	3.7	25.0	29.0	39.0	3.97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3.7	3.7	24.2	31.1	37.3	3.94
	1~2년 미만	3.9	6.5	20.8	26.0	42.9	3.97
	2~3년 미만	0.0	8.3	37.5	20.8	33.3	3.79
	3년 이상	2.6	5.3	23.7	31.6	36.8	3.95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형이 도시형이나 농촌형보다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2년 미만이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

물자투입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9) 현재 상황전파 역량 보유

현재 상황전파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상황전파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상황전파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상황전파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상황전파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상황전파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상황전파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29〉 특성별 현재 상황전파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상황전파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1.0	0.7	11.7	23.0	63.7	4.48
성별	남성	0.8	0.8	10.8	23.1	64.6	4.50
	여성	2.5	0.0	17.5	22.5	57.5	4.3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3.0	0.0	19.0	22.0	56.0	4.28
	기초자치단체	0.0	1.0	8.0	23.5	67.5	4.58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1.0	8.0	29.0	62.0	4.52
	도농복합형	0.0	1.7	8.3	20.0	70.0	4.58
	농촌형	0.0	0.0	7.5	15.0	77.5	4.70
직렬별	행정직	0.6	0.0	11.1	23.3	65.0	4.52
	기술직	1.7	1.7	12.5	22.5	61.7	4.41
직급별	5급 이상	0.0	3.6	17.9	3.6	75.0	4.50
	6급 이하	1.1	0.4	11.0	25.0	62.5	4.47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0.6	0.6	8.1	24.8	65.8	4.55
	1~2년 미만	1.3	0.0	16.9	22.1	59.7	4.39
	2~3년 미만	0.0	4.2	16.7	16.7	62.5	4.38
	3년 이상	2.6	0.0	13.2	21.1	63.2	4.42

10) 현재 조기경보 역량 보유

현재 조기경보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조기경보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조기경보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조기경보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조기경보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조기경보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조기경보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30〉 특성별 현재 조기경보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조기경보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1.3	7.0	28.7	28.0	35.0	3.88
성별	남성	1.2	7.3	28.1	28.5	35.0	3.89
	여성	2.5	5.0	32.5	25.0	35.0	3.85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2.0	7.0	30.0	25.0	36.0	3.86
	기초자치단체	1.0	7.0	28.0	29.5	34.5	3.90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2.0	6.0	29.0	34.0	29.0	3.82
	도농복합형	0.0	5.0	30.0	28.3	36.7	3.97
	농촌형	0.0	12.5	22.5	20.0	45.0	3.98
직렬별	행정직	1.7	4.4	26.7	32.2	35.0	3.94
	기술직	0.8	10.8	31.7	21.7	35.0	3.79
직급별	5급 이상	3.6	10.7	42.9	17.9	25.0	3.50
	6급 이하	1.1	6.6	27.2	29.0	36.0	3.92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9	5.6	23.0	34.8	34.8	3.95
	1~2년 미만	1.3	3.9	41.6	23.4	29.9	3.77
	2~3년 미만	0.0	20.8	25.0	12.5	41.7	3.75
	3년 이상	0.0	10.5	28.9	18.4	42.1	3.92

11) 현재 정책결정 역량 보유

현재 정책결정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정책결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정책결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정책결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정책결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정책결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2~3년 미만이 정책결정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31〉 특성별 현재 정책결정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정책결정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3.7	4.7	30.3	28.7	32.7	3.82
성별	남성	3.8	4.2	30.4	28.1	33.5	3.83
	여성	2.5	7.5	30.0	32.5	27.5	3.75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5.0	5.0	28.0	33.0	29.0	3.76
	기초자치단체	3.0	4.5	31.5	26.5	34.5	3.85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5.0	4.0	37.0	29.0	25.0	3.65
	도농복합형	0.0	5.0	31.7	31.7	31.7	3.90
	농촌형	2.5	5.0	17.5	12.5	62.5	4.28
직렬별	행정직	1.7	4.4	32.2	28.3	33.3	3.87
	기술직	6.7	5.0	27.5	29.2	31.7	3.74
직급별	5급 이상	3.6	7.1	21.4	28.6	39.3	3.93
	6급 이하	3.7	4.4	31.3	28.7	32.0	3.81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3.1	2.5	31.7	27.3	35.4	3.89
	1~2년 미만	6.5	3.9	35.1	29.9	24.7	3.62
	2~3년 미만	0.0	8.3	16.7	41.7	33.3	4.00
	3년 이상	2.6	13.2	23.7	23.7	36.8	3.79

12) 현재 회복력 역량 보유

현재 회복력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회복력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32〉 특성별 현재 회복력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회복력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5.3	9.3	37.3	24.3	23.7	3.52
성별	남성	5.4	8.8	37.3	24.2	24.2	3.53
	여성	5.0	12.5	37.5	25.0	20.0	3.4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6.0	5.0	32.0	24.0	33.0	3.73
	기초자치단체	5.0	11.5	40.0	24.5	19.0	3.41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5.0	10.0	40.0	25.0	20.0	3.45
	도농복합형	3.3	11.7	51.7	18.3	15.0	3.30
	농촌형	7.5	15.0	22.5	32.5	22.5	3.48
직렬별	행정직	3.9	8.9	42.8	22.8	21.7	3.49
	기술직	7.5	10.0	29.2	26.7	26.7	3.55
직급별	5급 이상	10.7	14.3	35.7	21.4	17.9	3.21
	6급 이하	4.8	8.8	37.5	24.6	24.3	3.55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5.0	7.5	37.3	25.5	24.8	3.58
	1~2년 미만	6.5	7.8	42.9	24.7	18.2	3.40
	2~3년 미만	4.2	25.0	20.8	25.0	25.0	3.42
	3년 이상	5.3	10.5	36.8	18.4	28.9	3.55

그리고 광역자치단체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회복력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회복력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 회복력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회복력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회복력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3) 현재 기관장리더십 역량 보유

현재 기관장리더십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기관장리더십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33〉 특성별 현재 기관장리더십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기관장리더십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2.0	2.7	14.0	22.0	59.3	4.34
성별	남성	1.5	3.1	14.2	20.4	60.8	4.36
	여성	5.0	0.0	12.5	32.5	50.0	4.2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6.0	3.0	16.0	22.0	53.0	4.13
	기초자치단체	0.0	2.5	13.0	22.0	62.5	4.45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0.0	3.0	11.0	30.0	56.0	4.39
	도농복합형	0.0	1.7	20.0	15.0	63.3	4.40
	농촌형	0.0	2.5	7.5	12.5	77.5	4.65
직렬별	행정직	1.7	2.8	10.6	22.2	62.8	4.42
	기술직	2.5	2.5	19.2	21.7	54.2	4.23
직급별	5급 이상	0.0	3.6	3.6	17.9	75.0	4.64
	6급 이하	2.2	2.6	15.1	22.4	57.7	4.31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2	0.6	10.6	22.4	65.2	4.50
	1~2년 미만	2.6	5.2	18.2	24.7	49.4	4.13
	2~3년 미만	0.0	4.2	20.8	12.5	62.5	4.33
	3년 이상	5.3	5.3	15.8	21.1	52.6	4.11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관장리더십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기관장리더십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기관장리더십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기관장리더십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기관장리더십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4) 현재 복구계획 역량 보유

현재 복구계획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복구계획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34〉 특성별 현재 복구계획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복구계획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1.7	1.7	17.3	34.3	45.0	4.19
성별	남성	1.2	1.9	17.3	33.5	46.2	4.22
	여성	5.0	0.0	17.5	40.0	37.5	4.05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2.0	3.0	16.0	37.0	42.0	4.14
	기초자치단체	1.5	1.0	18.0	33.0	46.5	4.22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2.0	2.0	22.0	38.0	36.0	4.04
	도농복합형	0.0	0.0	13.3	28.3	58.3	4.45
	농촌형	2.5	0.0	15.0	27.5	55.0	4.33
직렬별	행정직	1.7	2.8	15.6	33.3	46.7	4.21
	기술직	1.7	0.0	20.0	35.8	42.5	4.18
직급별	5급 이상	7.1	0.0	14.3	35.7	42.9	4.07
	6급 이하	1.1	1.8	17.6	34.2	45.2	4.21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1.9	1.2	13.7	35.4	47.8	4.26
	1~2년 미만	0.0	2.6	22.1	35.1	40.3	4.13
	2~3년 미만	0.0	4.2	25.0	20.8	50.0	4.17
	3년 이상	5.3	0.0	18.4	36.8	39.5	4.05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복구계획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농복합형이 도시형이나 농촌형보다 복구계획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복구계획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6급 이하가 5급 이상에 비해 복구계획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1년 미만이 복구계획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15) 현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보유

현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보유 정도를 살펴보면, 여성에 비해 남성이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표 4-35〉 특성별 현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보유

(단위: %)

현재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보유		매우 낮다	낮다	보통	높다	매우 높다	5점 평균
전체		2.3	3.0	31.3	35.0	28.3	3.84
성별	남성	1.5	3.1	31.2	35.0	29.2	3.87
	여성	7.5	2.5	32.5	35.0	22.5	3.63
자치단체별	광역자치단체	4.0	3.0	28.0	38.0	27.0	3.81
	기초자치단체	1.5	3.0	33.0	33.5	29.0	3.86
기초자치단체별	도시형	3.0	4.0	34.0	40.0	19.0	3.68
	도농복합형	0.0	1.7	36.7	30.0	31.7	3.92
	농촌형	0.0	2.5	25.0	22.5	50.0	4.20
직렬별	행정직	1.7	3.9	33.3	36.1	25.0	3.79
	기술직	3.3	1.7	28.3	33.3	33.3	3.92
직급별	5급 이상	0.0	7.1	21.4	42.9	28.6	3.93
	6급 이하	2.6	2.6	32.4	34.2	28.3	3.83
담당 업무 경력별	1년 미만	2.5	3.1	30.4	35.4	28.6	3.84
	1~2년 미만	2.6	1.3	33.8	35.1	27.3	3.83
	2~3년 미만	0.0	8.3	29.2	37.5	25.0	3.79
	3년 이상	2.6	2.6	31.6	31.6	31.6	3.87

그리고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형이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보다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직급별로 보면 5급 이상이 6급 이하에 비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담당 업무 경력별로는 3년 이상이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을 더 많이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제3절 안전관리 역량 차이분석(Gap Analysis) 결과

1. 재난 관리 단계별 안전관리 역량

안전관리를 위한 역량의 중요도를 보면, 전체 안전관리 평균 역량은 86.0점으로 나타났다. 재난 관리 단계별로 보면, 예방 단계는 평균 87.2점이며, 준비 단계는 84.9점, 대응 단계는 88.1점, 복구 단계는 83.4점으로 나타났다. 즉, 대응 단계의 중요도가 가장 높은 것을 파악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15가지의 주요역량의 중요도를 살펴보면, 상황전파 역량이 92.7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기관장 리더십이 89.5점, 안전의식 역량이 88.9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또한 복구계획 역량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88.8점의 중요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는 별도로 현재 각 자치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안전관리 역량 수준은 상황전파 역량이 86.9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기관장 리더십이 83.5점, 복구계획 역량이 79.8점, 뒤를 이어 재난예방계획 수립 역량이 78.6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책결정 역량과 회복력 역량이 모두 62.9점으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표 4-36〉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 및 현재 역량수준 점수

단계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 점수	현재 역량수준
예방	안전의식 역량	88.9	68.9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88.3	78.6
	기관장 리더십	89.5	83.5
	정책결정 역량	82.1	62.9
	예방 단계 평균	87.2	73.5
준비	교육 및 훈련 역량	84.3	70.5
	거버넌스 구축 역량	85.8	70.3
	협업 및 융합 역량	85.3	68.5

단계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 점수	현재 역량수준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85.4	69.1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79.9	69.8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88.8	71.0
	준비 단계 평균	84.9	69.9
대응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86.0	73.5
	상황전파 역량	92.7	86.9
	조기경보 역량	85.6	72.1
	대응 단계 평균	88.1	77.5
복구	회복력 역량	77.9	62.9
	복구계획 역량	88.8	79.8
	복구 단계 평균	83.4	71.4
전체 안전관리 역량 평균		86.0	72.5

2. 각 단계별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와 현재 역량수준 차이

이하에서는 각 단계별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역량수준 그리고 중요도와 현재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추가적으로 안전관리 역량 중요도(X축)의 높고 낮음과 현재 보유 역량수준(Y축)의 높고 낮음을 기준으로 IPA(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을 실시한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 IPA는 역량 중요도와 현재 보유 역량을 통해 2차원 도표 상에 각 항목을 위치시키는 분석기법으로 역량 중요도 평균과 현재 보유 역량 평균을 중심축으로 4분면(2×2 Matrix)을 나눈 후 각 항목의 개선순위를 제시하는 분석 도구이다. IPA 결과에 따른 영역별 전략을 제시하면 다음 표와 같다.

〈표 4-37〉 IPA 결과 영역별 전략

영역	전략
I. 중점개선 영역	중요도는 높은 반면 보유 역량이 낮아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
II. 점진개선 영역	중요도와 보유 역량이 모두 낮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
III. 지속유지 영역	중요도는 낮고 보유 역량은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
IV. 유지강화 영역	중요도와 보유 역량이 모두 높아 항목에 대한 유지 강화

가. 예방단계

예방단계에서는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안전의식 역량의 중요도가 88.9점이고 현재 역량 수준이 68.9점으로 차이가 20점으로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정책결정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예방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역량은 안전의식 역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38〉 예방단계의 안전관리 역량 Gap 분석 결과

예방단계 안전관리 역량	Gap(a-b)	중요도(a)	현재역량수준(b)
안전의식 역량	20.0	88.9	68.9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9.7	88.3	78.6
기관장 리더십	6.0	89.5	83.5
정책결정 역량	11.6	82.1	70.5

전체 평균의 관점에서 볼 때, 예방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지식의 결여(27.9%)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24.3%), 역량제고 동기부족(20.6%), 역량제고 기회부족(17.1%),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5.3%)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예방단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제고시키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안전관

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예방단계의 역량수준을 제고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역량별로 살펴보면, 다른 역량과 달리 안전의식 역량의 경우에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미비(28.0%)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표 4-39〉 예방단계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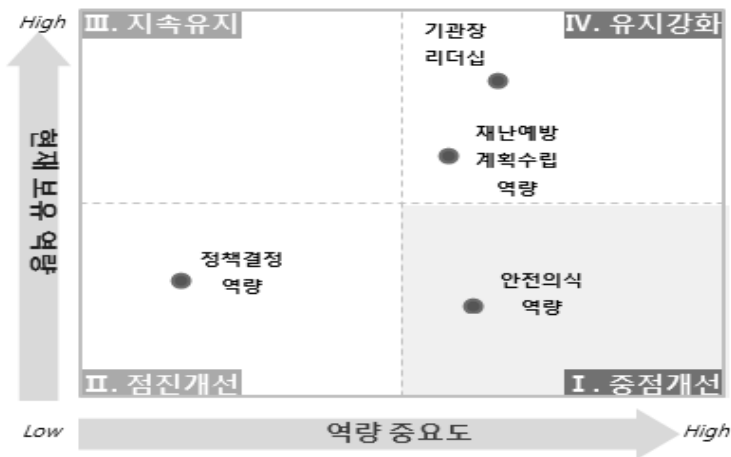
(단위 : %)

예방단계 역량 차이 원인	안전의식	재난예방 계획수립	기관장 리더십	정책결정	전체 평균
전문지식 결여	25.0	31.6	28.9	25.9	27.85
역량제고 기회부족	14.0	9.5	20.0	24.7	17.05
역량제고 동기부족	22.0	15.8	22.2	22.2	20.55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	3.7	8.4	6.7	2.5	5.33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미비	28.0	29.5	20.0	19.8	24.33
교육 부족	0.6	-	-	1.2	0.45
업무숙지도 부족	-	2.1	-	-	0.53
인력 부족	1.2	2.1	-	-	0.83
예산 부족	1.8	-	2.2	1.2	1.30
의식 결여	2.4	1.1	-	-	0.88
업무회피성	-	-	-	1.2	0.30
이론과 현실의 차이	0.6	-	-	1.2	0.45
기존 관행	0.6	-	-	-	0.15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0

한편, 예방단계에 있어서 세부 역량별 역량 중요도 평균과 현재 보유 역량 평균을 중심축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중점개선 영역은 안전의식 역량으로 나타났다. 즉, 안전의식 역량은 중요도는 높은 반면에 보유 역량이 낮아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점진개선 영역은 정책결정 역량으로 나타났다. 즉, 정책결정 영역은 중요도와 보유 역량이 모두 낮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기관장 리더십과 재난예방 계획 수립 역량은 유지강화 영역으로 나타났는데, 중요도와

보유 역량이 모두 높아 역량에 대한 유지강화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그림 4-3>과 같이 종합해 보면, 안전의식 역량을 중심으로 즉각적인 개선과 더불어 정책결정 역량을 점진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그림 4-3〉 예방단계의 IPA 결과



나. 준비단계

준비단계에서는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한 중요도가 88.8점이고 현재 역량수준이 71.0점으로 차이가 17.8점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뒤를 이어 협업 및 융합 역량에서 16.8점, 다음으로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이 16.3점, 거버넌스 구축 역량이 15.5점,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이 10.1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준비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역량은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협업 및 융합 역량과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표 4-40〉 준비단계의 안전관리 역량 Gap 분석 결과

준비단계 안전관리 역량	Gap(a-b)	중요도(a)	현재역량수준(b)
교육 및 훈련 역량	13.8	84.3	70.5
거버넌스 구축 역량	15.5	85.8	70.3
협업 및 융합 역량	16.8	85.3	68.5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	16.3	85.4	69.1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10.1	79.9	69.8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17.8	88.8	71.0

전체 평균의 관점에서 볼 때, 준비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32.1%)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전문지식의 결여(21.7%), 역량제고 기회부족(17.7%), 역량제고 동기부족(15.0%),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7.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준비단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준비단계의 역량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만, 세부적인 역량별로 살펴보면, 교육 및 훈련 역량은 역량제고 기회부족(45.5%)이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으며, 담당공무원 전문성 역량은 전문지식 결여(50.4%)가 가장 큰 원인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준비단계의 전체적인 관점에서의 역량 차이의 원인 파악도 중요하지만, 세부 역량별로도 원인이 다르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표 4-41〉 준비단계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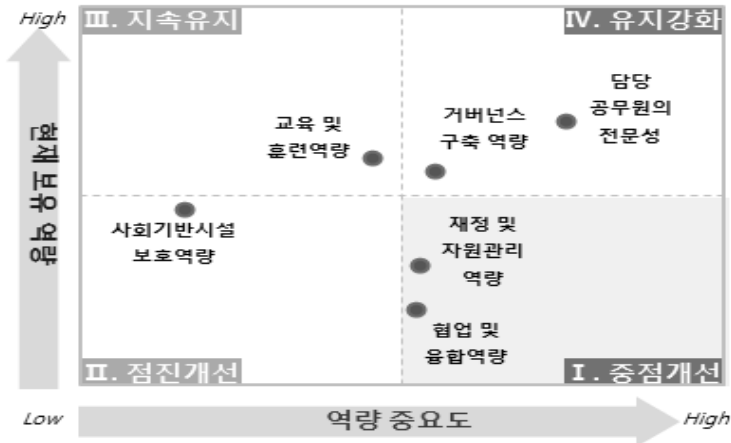
(단위 : %)

준비단계 역량 차이 원인	교육 및 훈련	거버넌스 구축	협업 및 융합	재정 및 자원관리	사회기반 시설보호	담당공무원 전문성	전체 평균
전문지식 결여	10.7	18.0	10.2	8.5	32.5	50.4	21.72
역량제고 기회부족	45.5	15.6	16.4	7.6	7.5	13.3	17.65
역량제고 동기부족	19.8	21.9	14.8	13.6	10.0	9.6	14.95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	4.1	5.5	9.5	14.4	2.5	8.9	7.48

준비단계 역량 차이 원인	교육 및 훈련	거버넌스 구축	협업 및 융합	재정 및 자원관리	사회기반 시설보호	담당공무 원전문성	전체 평균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미비	16.5	35.9	44.5	40.7	42.5	12.6	32.12
교육 부족	1.7	-	-	-	-	-	0.28
인력 부족	0.8	0.8	-	0.8	-	1.5	0.65
예산 부족	-	-	0.8	12.7	2.5	0.7	2.78
의식 결여	-	2.3	-	0.8	2.5	-	0.93
업무회피성	0.8	-	0.8	0.8	-	0.7	0.52
수직적 관계로 인한 차이	-	-	1.6	-	-	-	0.27
찾은 인사이동	-	-	0.8	-	-	2.2	0.50
주민의 대가 요구	-	-	0.8	-	-	-	0.13
합계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0

한편, 준비단계에 있어서 세부 역량별 역량 중요도 평균과 현재 보유 역량 평균을 중심축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중점개선 영역은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과 협업 및 융합 역량으로 나타났다. 즉,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과 협업 및 융합 역량은 중요도는 높은 반면에 보유 역량이 낮아 즉각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점진개선 영역은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으로 나타났다. 즉,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은 중요도와 보유 역량이 모두 낮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지속유지 영역은 교육 및 훈련 역량으로 나타났다. 즉, 교육 및 훈련 역량은 중요도는 낮고 역량은 높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거버넌스 구축 역량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은 유지강화 영역으로 나타났다. 중요도와 보유 역량이 모두 높아 역량에 대한 유지강화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준비단계에 있어서는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과 협업 및 융합 역량을 집중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며,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은 점진적으로 개선을 이루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그림 4-4> 참고).

〈그림 4-4〉 준비단계의 IPA 결과



다. 대응단계

대응단계에서는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조기경보 역량에 대한 중요도가 85.6점이고 현재 역량수준이 72.1점으로 차이가 13.5점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다음으로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이 12.5 점, 상황전파 역량이 5.8점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대응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역량은 조기경보 역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대응복구 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도 차이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도 필요할 것이다.

〈표 4-42〉 대응단계의 안전관리 역량 Gap 분석 결과

대응단계 안전관리 역량	Gap(a-b)	중요도(a)	현재역량수준(b)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12.5	86.0	73.5
상황전파 역량	5.8	92.7	86.9
조기경보 역량	13.5	85.6	72.1

전체 평균의 관점에서 볼 때, 대응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44.4%)를 들 수 있으며, 다음으로 역량제고 기회부족(13.2%), 예산 부족(10.3%), 역량제고 동기부족(10.0%), 전문지식의 결여(9.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응단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역량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표 4-43〉 대응단계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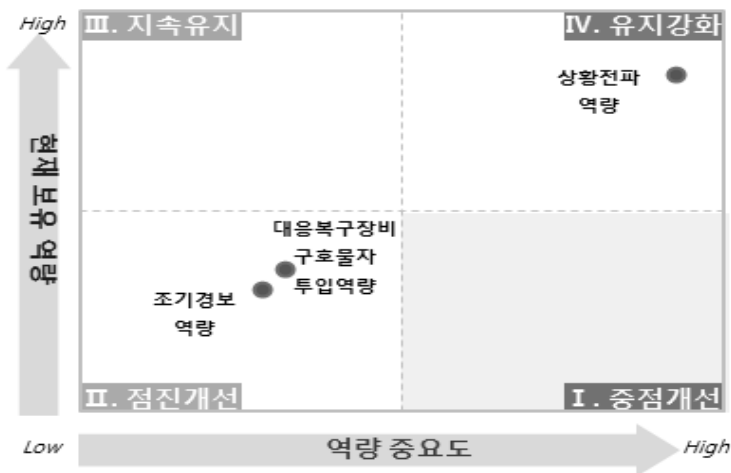
(단위 : %)

대응단계 역량 차이 원인	교육 및 훈련	거버넌스 구축	협업 및 융합	전체 평균
전문지식 결여	5.6	14.9	8.2	9.57
역량제고 기회부족	12.4	17.0	10.3	13.23
역량제고 동기부족	6.7	17.0	6.2	9.97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	1.1	6.4	14.4	7.30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미비	48.3	42.6	42.3	44.40
업무속지도 부족	-	2.1	-	0.70
인력 부족	-	-	13.4	4.47
예산 부족	25.8	-	5.2	10.33
합계	100.0	100.0	100.0	100.00

한편, 대응단계에 있어서 세부 역량별 역량 중요도 평균과 현재 보유 역량 평균을 중심축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중점개선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점진개선 영역은 조기경보 역량과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으로 나타났다. 즉, 조기경보 역량과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은 중요도와 보유 역량이 모두 낮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지속유지 영역도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상황전파 역량은 유지강화 영역으로 나타났다. 즉, 상황전파 역량은 중요도와 보유 역량이 모두 높아 역량에 대한 유지강화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대응단계에 있어서는 조기경보 역량과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을 점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상황전파 역량은 유지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그림 4-5> 참고).

〈그림 4-5〉 대응단계의 IPA 결과



라. 복구단계

복구단계에서는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회복력 역량의 중요도가 77.9점이고 현재 역량수준이 62.9점으로 15.0점의 차이가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복구계획 역량은 중요도가 88.8점이고 현재 역량수준이 79.8점으로 9.0점의 차이가 나타났다. 따라서 안전관리의 복구단계에서 가장 시급한 보완이 필요한 역량은 회복력 역량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표 4-44〉 복구단계의 안전관리 역량 Gap 분석 결과

복구단계 안전관리 역량	Gap(a-b)	중요도(a)	현재역량수준(b)
회복력 역량	15.0	77.9	62.9
복구계획 역량	9.0	88.8	79.8

전체 평균의 관점에서 볼 때, 대응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42.2%)를 들 수 있다. 다음으로 전문지식의 결여(21.9%), 예산 부족(12.1%), 역량제고 기회부족(9.7%), 역량제고 동기부족(7.7%),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3.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복구단계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을 조속히 구축하여 역량수준을 제고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다음으로 전문지식 결여도 일정 수준 이상 역량 차이의 원인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복구단계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전문지식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표 4-45〉 복구단계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원인

(단위 : %)

복구단계 역량 차이 원인	회복력	복구계획	전체 평균
전문지식 결여	33.9	9.9	21.90
역량제고 기회부족	8.0	11.3	9.65
역량제고 동기부족	5.4	9.9	7.65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	0.9	7.0	3.95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 미비	42.0	42.3	42.15
인력 부족	5.4	-	2.70
예산 부족	4.5	19.7	12.10
합계	100.0	100.0	100.00

한편, 복구단계에 있어서 세부 역량별 역량 중요도 평균과 현재 보유 역량 평균을 중심축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는 <그림 4-6>과 같다.

<그림 4-6> 복구단계의 IPA 결과



중점개선 영역과 지속유지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점진개선 영역은 회복력 역량으로 나타났다. 즉, 회복력 역량은 중요도와 보유 역량이 모두 낮아 점진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복구계획 역량은 유지강화 영역으로 나타났다. 즉, 복구계획 역량은 중요도와 보유 역량이 모두 높아 역량에 대한 유지강화가 필요함을 파악할 수 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복구단계에 있어서는 회복력 역량을 점진적으로 개선함과 동시에 복구계획 역량은 유지강화시키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제4절 안전관리 역량 평균비교 분석 결과

1. 안전관리 역량 평균비교 분석

가. 소속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의 소속(광역, 기초)별 평균비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46〉 소속(광역, 기초)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안전관리 역량	광역 자치단체 (a)	기초 자치단체 (b)	평균 차이 (a-b)	t	Sig.
안전의식 역량	67.8	69.5	-1.7	2.800	.006**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74.3	80.8	-6.5	.827	.409
교육 및 훈련 역량	68.5	71.5	-3.0	-.841	.401
거버넌스 구축 역량	69.5	70.8	-1.3	1.929	.074
협업 및 융합 역량	70.3	67.6	2.7	3.474	.001**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68.8	69.3	-0.5	1.524	.129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71.5	69.0	2.5	2.891	.004**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71.8	74.4	-2.6	1.416	.158
상황전파 역량	82.0	89.4	-7.4	.899	.369
조기경보 역량	71.5	72.4	-0.9	1.308	.192
정책결정 역량	69.0	71.3	-2.3	1.108	.269
회복력 역량	68.3	60.3	8.0	2.462	0.14
기관장 리더십	78.3	86.1	-7.8	-1.401	.163
복구계획 역량	78.5	80.5	-2.0	.696	.487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70.3	71.4	-1.1	3.355	.001**

*p < .05, **p < 0.01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협업 및 융합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회복력 역량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안전관리 역량의 하위 역량별로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안전의식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안전의식 역량과 담당공무원의 역량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협업 및 융합 역량과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은 기초자치단체보다 광역자치단체가 실질적으로 역량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외 역량에 있어서는 역량평균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를 도시형, 도농복합형, 그리고 농촌형으로 각각 구분한 후 안전관리 역량의 평균비교를 살펴보면, 안전의식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교육 및 훈련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상황전파 역량, 조기경보 역량, 정책결정 역량, 회복력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은 농촌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과 복구계획 역량은 도농복합형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농촌형 기초자치단체의 경우에 대부분의 역량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소속(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별로 안전관리 역량의 세부 역량별로 평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육 및 훈련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상황전파 역량, 조기경보 역량, 정책결정 역량, 회복력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복구계획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있어서 소속(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안전의식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에 있어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표 4-47〉 소속(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안전관리 역량	도시형 (a)	도농 복합형 (b)	농촌형 (c)	F	Sig.	Scheffe
안전의식 역량	62.5	74.6	79.4	.433	.649	-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79.5	80.8	83.8	2.091	.126	-
교육 및 훈련 역량	70.3	71.7	74.4	6.124	.003**	a<c
거버넌스 구축 역량	67.5	70.8	78.8	7.707	.001**	a<c
협업 및 융합 역량	62.8	70.4	75.6	9.814	.000**	a<c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65.5	72.1	74.4	8.082	.000**	a<c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66.8	69.2	74.4	1.053	.351	-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68.3	81.3	79.4	12.274	.000**	a<b,c
상황전파 역량	88.0	89.6	92.5	5.275	.006**	a<c
조기경보 역량	70.5	74.2	74.4	6.443	.002**	a<c
정책결정 역량	66.3	72.5	81.9	9.393	.000**	a<c
회복력 역량	61.3	57.5	61.9	9.524	.000**	a,b<c
기관장 리더십	84.8	85.0	91.3	5.282	.006**	a,b<c
복구계획 역량	76.0	86.3	83.1	5.849	.003**	a<c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67.0	72.9	80.0	10.316	.000**	a<b,c

*p < .05, **p < 0.01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서 볼 때, 대체적으로 농촌형의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형의 경우 도농복합형이나 농촌형에 비해서 안전관리 역량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도시형의 안전관리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나. 직렬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의 직렬별 평균비교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48〉 직렬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안전관리 역량	행정직(a)	기술직(b)	평균 차이 (a-b)	t	Sig.
안전의식 역량	68.8	69.2	-0.4	.139	.890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76.9	81.0	-4.1	.000	1.000
교육 및 훈련 역량	71.0	69.8	1.2	.576	.565
거버넌스 구축 역량	69.7	71.3	-1.6	2.948	.003**
협업 및 융합 역량	68.3	68.8	-0.5	1.105	.270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67.2	71.9	-4.7	1.414	.159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70.6	68.8	1.8	1.435	.152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75.4	70.6	4.8	1.027	.305
상황전파 역량	88.1	85.2	2.9	2.373	.019*
조기경보 역량	73.6	69.8	3.8	1.648	.101
정책결정 역량	71.8	68.5	3.3	.694	.488
회복력 역량	62.4	63.8	-1.4	.897	.371
기관장 리더십	85.4	80.6	4.8	1.880	.073
복구계획 역량	80.1	79.4	0.7	1.355	.176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69.7	72.9	-3.2	1.224	.203

*p < .05, **p < 0.01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량은 교육 및 훈련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상황전파 역량, 조기경보 역량, 정책결정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복구계획 역량 등인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기술직이 행정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량은 안전의식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회복력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으로 나타났다.

추가적으로 행정직과 기술직 간의 안전관리 역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거버넌스 구축 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행정직에 비해 기술직의 역량이 높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에 통계적으로 볼 때, 상황전파 역량은 기술직에 비해 행정직의 역량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 경력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의 경력별 평균비교를 살펴보면, 1년 미만 경력의 응답자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년 미만 경력의 응답자는 안전의식 역량, 교육 및 훈련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상황전파 역량, 조기경보 역량, 회복력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복구계획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이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년 미만 경력의 응답자는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년 미만 경력의 응답자는 재난예방 계획 수립 역량, 정책결정 역량이, 그리고 3년 이상 경력의 응답자는 안전의식 역량과 협업 및 융합 역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현재 경력별 안전관리에 대한 보유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 역량의 세부 역량별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경력별 안전관리 역량의 차이는 평균의 관점에서 그 정도의 차이가 있다는 정도에서 해석할 필요가 있다.

〈표 4-49〉 경력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안전관리 역량	1년 미만(a)	1~2년 미만(b)	2~3년 미만(c)	3년 이상(d)	F	Sig.	Scheffe
안전의식 역량	69.4	68.5	63.5	71.1	.761	.517	-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80.7	76.0	81.3	73.0	.414	.743	-
교육 및 훈련 역량	72.8	65.9	67.6	71.7	.907	.438	-
거버넌스 구축 역량	73.9	64.3	68.8	68.4	.054	.984	-
협업 및 융합 역량	70.7	63.0	67.7	71.1	.698	.554	-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71.3	64.9	67.7	69.1	.432	.730	-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71.4	67.2	67.7	69.7	.065	.978	-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73.6	74.4	69.8	73.7	.449	.719	-
상황전파 역량	88.7	84.7	84.4	85.5	.157	.925	-
조기경보 역량	73.8	69.2	68.8	73.0	.537	.657	-

안전관리 역량	1년 미만(a)	1~2년 미만(b)	2~3년 미만(c)	3년 이상(d)	F	Sig.	Scheffe
정책결정 역량	72.4	65.6	75.0	69.7	.431	.731	-
회복력 역량	64.4	60.1	60.4	63.8	.085	.968	-
기관장 리더십	87.4	78.2	83.3	77.6	.861	.462	-
복구계획 역량	81.5	78.2	79.2	76.3	1.061	.366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71.1	70.8	69.8	71.7	.378	.769	-

*p < .05, **p < 0.01

라. 직급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의 직급별(5급 이상, 6급 이하) 평균비교를 살펴 보면, 세부 역량별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0〉 직급별 안전관리 역량 비교

안전관리 역량	5급 이상 (a)	6급 이하 (b)	평균 차이 (a-b)	t	Sig.
안전의식 역량	65.2	69.3	-4.1	1.804	.080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81.3	78.3	3.0	.881	.379
교육 및 훈련 역량	74.1	70.1	4.0	1.870	.070
거버넌스 구축 역량	69.6	70.4	-0.8	.516	.606
협업 및 융합 역량	69.6	68.4	1.2	.349	.728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66.1	69.4	-3.3	.352	.725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66.1	70.2	-4.1	-.618	.541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67.0	74.2	-7.2	.427	.670
상황전파 역량	87.5	86.9	0.6	.407	.684
조기경보 역량	62.5	73.1	-10.6	-.208	.835
정책결정 역량	73.2	70.2	3.0	1.423	.156
회복력 역량	55.4	63.7	-8.3	.158	.875
기관장 리더십	91.1	82.7	8.4	2.206	.033*
복구계획 역량	76.8	80.1	-3.3	2.507	.017*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73.2	70.8	2.4	1.469	.151

*p < .05, **p < 0.01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안전의식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조기경보 역량, 회복력 역량, 복구계획 역량은 5급 이상보다는 6급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교육 및 훈련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상황전파 역량, 정책결정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은 5급 이상이 6급 이하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급별로 안전관리 역량의 세부 역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기관장 리더십 역량은 실질적으로 5급 이상의 역량이 6급 이하의 역량에 비해 높다고 할 수 있으며, 복구계획 역량은 6급 이하가 5급 이상의 역량보다 실질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2. 필수역량 중요도 평균비교 분석

가. 소속별 필수역량 중요도 비교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15개의 역량 가운데 상황전파 역량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담당공무원의 전문성과 안전의식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초자치단체는 기관장 리더십, 복구계획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에 의하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상황전파 역량, 회복력 역량, 그리고 기관장 리더십 역량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광역자치단체는 기초자치

단체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상황전파 역량, 회복력 역량을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에 기관장 리더십 역량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기초자치단체가 더욱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표 4-51〉 소속별(광역, 기초)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분석

안전관리 역량	광역 자치단체 (a)	기초 자치단체 (b)	평균 차이 (a-b)	t	Sig.
안전의식 역량	92.5	87.1	5.4	-.604	.546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89.5	87.8	1.7	-2.425	.016*
교육 및 훈련 역량	83.0	85.0	-2.0	-1.034	.302
거버넌스 구축 역량	88.5	84.4	4.1	-.419	.676
협업 및 융합 역량	90.3	82.9	7.4	.829	.408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87.8	84.3	3.5	-.164	.870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85.0	77.4	7.6	.792	.429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88.3	84.9	3.4	-.807	.420
상황전파 역량	93.8	92.1	1.7	-2.711	.008**
조기경보 역량	87.8	84.5	3.3	-.282	.778
정책결정 역량	84.0	81.1	2.9	-.694	.488
회복력 역량	82.5	75.6	6.9	2.370	.018*
기관장 리더십	87.5	90.5	-3.0	-2.433	.016*
복구계획 역량	89.8	88.4	1.4	-.727	.468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93.0	86.8	6.2	-.386	.700

*p < .05, **p < 0.01

한편, 소속별(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필수역량 중요도의 인식에 대한 평균비교를 보면,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은 어떠한 필수역량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농촌형보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다시 말하면, 농촌형은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모든 세부 중요도 인식에서 높게 나타났다.

〈표 4-52〉 소속별(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분석

안전관리 역량	도시형 (a)	도농 복합형 (b)	농촌형 (c)	F	Sig.	Scheffe
안전의식 역량	86.3	87.1	89.4	10.473	.000**	-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85.5	88.8	91.9	.571	.566	-
교육 및 훈련 역량	80.8	87.1	92.5	.471	.625	-
거버넌스 구축 역량	79.5	86.7	93.1	3.231	.042*	a<c
협업 및 융합 역량	77.0	85.0	94.4	4.414	.013*	a<c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79.8	85.4	93.8	2.651	.073	-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76.8	75.4	81.9	1.367	.257	-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78.5	88.3	95.6	5.898	.003**	a<c
상황전파 역량	89.3	93.3	97.5	.998	.370	-
조기경보 역량	80.3	85.0	94.4	.567	.568	-
정책결정 역량	75.3	84.2	91.3	5.436	.005**	a<c
회복력 역량	71.5	72.9	90.0	.453	.636	-
기관장 리더십	88.3	89.6	97.5	1.604	.204	-
복구계획 역량	84.8	90.4	94.4	4.579	.011*	a<c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81.5	89.6	95.6	4.873	.009**	a<c

*p < .05, **p < 0.01

통계적으로 소속별(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필수역량 중요도의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안전의식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정책결정 역량, 복구계획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시 말하면, 농촌형은 도시형이나 도농복합형에 비해 실질적으로 앞서 제시한 역량의 중요도에 대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나. 직렬별 필수역량 중요도 비교

직렬별 필수역량 중요도 비교분석결과에 따르면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15개의 역량 가운데 상황전파 역량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직의 경우 복구계획역량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안전의식 역량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안전의식역량과 재난예방 계획 수립 역량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53〉 직렬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분석

안전관리 역량	행정직	기술직	평균 차이 (a-b)	t	Sig.
안전의식 역량	89.0	88.8	0.2	-.149	.884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88.3	88.3	0.0	-1.580	.115
교육 및 훈련 역량	84.9	83.5	1.4	.422	.673
거버넌스 구축 역량	88.3	81.9	6.4	-.532	.595
협업 및 융합 역량	86.4	83.8	2.6	-.131	.896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86.7	83.5	3.2	-1.596	.112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81.4	77.7	3.7	.582	.553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86.9	84.6	2.3	1.536	.126
상황전파 역량	94.4	90.0	4.4	1.159	.248
조기경보 역량	87.2	83.1	4.1	1.257	.210
정책결정 역량	82.8	81.0	1.8	1.048	.296
회복력 역량	78.9	76.5	2.4	-.424	.672
기관장 리더십	91.0	87.3	3.7	1.713	.088
복구계획 역량	89.9	87.3	2.6	.288	.773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89.9	87.3	2.6	-1.141	.255

*p < .05, **p < 0.01

추가적으로 행정직과 기술직의 평균비교를 살펴보면, 모든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기술직에 비해 행정직이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하여 행정직과 기술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

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어떠한 세부 중요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행정직과 기술직은 평균적으로 볼 때, 기술직에 비해 행정직이 좀 더 중요도에 대해 인식을 더 높게 하고 있다는 정도에서 해석해야 한다.

다. 경력별 필수역량 중요도 비교

경력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력별로 구분된 집단 모두에서 15개의 역량 가운데 상황전파 역량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의 경우 기관장 리더십과 복구계획 역량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고, 2년 미만의 경력을 가진 응답자는 1년 미만 경력의 응답자와 마찬가지로 기관장 리더십에 대해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다. 3년 미만 경력을 가진 응답자는 조기경보 역량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을 중요한 역량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3년 이상 경력의 응답자의 경우에는 안전의식 역량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대해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

한편, 경력별로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세부 중요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달리 말하면, 경력의 차이에 따라서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표 4-54〉 경력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분석

안전관리 역량	1년 미만(a)	1~2년 미만(b)	2~3년 미만(c)	3년 이상(d)	F	Sig.	Scheffe
안전의식 역량	89.1	87.7	86.5	92.1	.546	.651	-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89.3	87.7	87.5	86.2	1.810	.145	-
교육 및 훈련 역량	84.9	85.1	78.1	84.2	1.637	.181	-
거버넌스 구축 역량	85.9	85.1	86.5	86.2	2.911	.035*	-
협업 및 융합 역량	85.2	83.8	84.4	89.5	1.682	.171	-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85.7	85.7	81.3	86.2	1.163	.324	-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80.1	80.2	78.1	79.6	.525	.665	-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85.6	88.0	83.3	85.5	.182	.908	-
상황전파 역량	92.5	92.5	91.7	94.1	.896	.443	-
조기경보 역량	85.1	84.4	89.6	87.5	.732	.534	-
정책결정 역량	81.2	83.1	80.2	84.9	1.401	.243	-
회복력 역량	77.8	78.2	76.0	78.9	.508	.677	-
기관장 리더십	90.7	89.3	86.5	86.8	3.564	.015*	-
복구계획 역량	90.1	87.7	84.4	88.8	.749	.524	-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89.0	87.3	89.6	90.8	.035	.991	-

*p < .05, **p < 0.01

라. 직급별 필수역량 중요도 비교

직급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비교를 보면, 5급 이상은 기관장 리더십과 복구계획 역량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안전의식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등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6급 이하는 상황전파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관장 리더십 역량, 안전의식 역량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복구계획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등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표 4-55〉 직급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분석

안전관리 역량	5급 이상	6급 이하	평균 차이 (a-b)	t	Sig.
안전의식 역량	93.8	88.4	5.4	-.879	.380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91.1	88.1	3.0	.671	.503
교육 및 훈련 역량	90.2	83.7	6.5	.846	.398
거버넌스 구축 역량	87.5	85.6	1.9	-.157	.875
협업 및 융합 역량	86.6	85.2	1.4	.245	.806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86.6	85.3	1.3	-.674	.501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76.8	80.2	-3.4	-.811	.418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87.5	85.8	1.7	-1.371	.172
상황전파 역량	93.8	92.6	1.2	.161	.872
조기경보 역량	84.8	85.7	-0.9	-2.115	.035*
정책결정 역량	87.5	81.5	6.0	.570	.569
회복력 역량	78.6	77.8	0.8	-1.516	.131
기관장 리더십	94.6	89.0	5.6	2.225	.032*
복구계획 역량	94.6	88.2	6.4	-.754	.451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92.9	88.4	4.5	.517	.606

*p < .05, **p < 0.01

그리고 직급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평균비교를 보면,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의 중요도와 조기경보 역량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5급 이상보다는 6급 이하가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 세부 역량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6급 이하보다는 5급 이상이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직급별로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기경보 역량의 중요도와 기관장 리더십 역량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직급 간에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달리 말하면, 조기경보 역량의 중요도와 기관장 리더십 역량의 중요도는 실질적으로 6급 이하에 비해 5급 이상이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제5장 결론

제1절 연구의 요약

제2절 정책적 제언



제5장 결 론



제1절 연구의 요약



본 연구는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역량의 보유 수준에 대하여 분석을 실시하고, 아울러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역량의 보유 수준 간의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리고 현재 안전관리 역량의 수준과 안전관리 중요도에 관한 평균비교 및 평균차이 검증을 실시하였다.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역량의 보유 수준에 대하여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관점에서 역량의 중요도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 수준을 보면, 제시된 15가지 역량(안전의식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교육 및 훈련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상황전파 역량, 조기경보 역량, 정책결정 역량, 회복력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복구계획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모두 상당히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상황전파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안전의식 역량, 복구계획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등은 상대적으로 다른 역량에 비해 더욱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둘째, 현재 안전관리 역량의 보유 수준에 관한 공무원들의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15가지 역량(안전의식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교육 및 훈련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상황전파 역량, 조기경보 역량, 정책결정 역량, 회복력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복구계획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

에 대하여 일정 수준(보통) 이상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상황전파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복구계획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등이 상대적으로 다른 역량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회복력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안전의식 역량과 재정 및 자원 관리 역량 등은 낮은 역량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와 현재 역량의 보유 수준 간의 차이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 역량에 대한 중요도와 현재 보유 수준 간의 차이분석(Gap Analysis)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모든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가 현재 보유 수준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예방단계(안전의식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정책결정 역량)에서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안전의식 역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방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지식의 결여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 역량제고 동기부족, 역량제고 기회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예방단계에 있어서 세부 역량별 역량 중요도 평균과 현재 보유 역량 평균을 중심축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중점개선 영역은 안전의식 역량으로 나타났으며, 점진개선 영역은 정책결정 역량으로 나타났다.

셋째, 준비단계(교육 및 훈련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서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준비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지식의 결여, 역량제고 동기부족, 역량제고 동기부족,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준비단계에 있어서 세부 역량별 역량 중요도 평균과 현재 보유 역량 평균을 중심축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중점개선 영역은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과 협업 및 융합 역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점진개선 영역은 사회기반시설 보호 역량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응단계(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상황전파 역량, 조기경보 역량)에서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조기경보 역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응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역량제고 기회부족, 예산 부족, 역량제고 동기부족, 전문지식의 결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응단계에 있어서 세부 역량별 역량 중요도 평균과 현재 보유 역량 평균을 중심축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중점개선 영역은 나타나지 않았다. 점진개선 영역은 조기경보 역량과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복구단계(회복력 역량, 복구계획 역량)에서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회복력 역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응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지식의 결여, 예산 부족, 역량제고 기회부족, 역량제고 동기부족,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복구단계에 있어서 세부 역량별 역량 중요도 평균과 현재 보유 역량 평균을 중심축으로 IPA를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점진개선 영역은 회복력 역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그리고 복구계획 역량은 유지강화 영역으로 나타났다.

현재 안전관리 역량 수준의 평균비교 및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의 소속(광역, 기초)별 평균비교에 의하면, 기초자치단체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협업 및 융합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회복력 역량은 기초자치단체에 비해 광역자치단체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안전관리 역량의 하위 역량별로 실질적으로 차이가 있는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안전의식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은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소속(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별로 안전관리 역량의 세부 역량별로 평균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에 의하면, 교육 및 훈련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상황전파 역량, 조기경보 역량, 정책결정 역량, 회복력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복구계획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 있어서 소속(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의 직렬별 평균비교에 의하면, 행정직이 기술직에 비해 높은 수준의 역량은 교육 및 훈련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상황전파 역량, 조기경보 역량, 정책결정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복구계획 역량으로 나타났다. 행정직과 기술직 간의 안전관리 역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거버넌스 구축 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의 경력별 평균비교에 의하면, 1년 미만 경력의 응답자가 대체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력별 안전관리에 대한 보유 역량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안전관리 역량의 세부 역량별로는 실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안전관리에 대한 현재 보유 역량의 직급별(5급 이상, 6급 이하) 평균비교에 의하면, 안전의식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투입 역량, 조기경보 역량, 회복력 역량, 복구계획 역량은 5급 이상보다는 6급 이하가 상대적으로 높은 역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급별로 안전관리 역량의 세부 역량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기관장 리더십 역량과 복구계획 역량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전관리 역량의 중요도에 관한 평균비교 및 평균차이 검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대체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서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해서 높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모두 15개의 역량 가운데 상황전파 역량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독립표본 T-test 결과에 의하면,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상황전파 역량, 회복력 역량, 그리고 기관장 리더십 역량에서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소속별(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필수역량 중요도의 인식에 대한 평균비교를 보면, 도시형과 도농복합형은 어떠한 필수역량의 중요도에 있어서도 농촌형보다 중요도에 대한 인식이 높게 나타나지 않았다. 통계적으로 소속별(도시형, 도농복합형, 농촌형) 필수역량 중요도의 인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에 의하면, 안전의식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대응복구장비 및 구호물자 투입 역량, 정책결정 역량, 복구계획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역량에 대한 중요도 인식은 실질적으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직렬별 필수역량 중요도 비교분석결과에 따르면 행정직과 기술직 모두 15개의 역량 가운데 상황전파 역량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행정직의 경우 복구계획역량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안전의식 역량 또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직의 경우에는 안전의식역량과 재난예방 계획 수립 역량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하여 행정직과 기술직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인식의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보기 위해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 어떠한 세부 중요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인식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경력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분석결과에 따르면 경력별로 구분된 집단 모두에서 15개의 역량 가운데 상황전파 역량에 대해 가장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력별로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지 파악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을 실시한 결과, 어떠한 세부 중요도에 있어서도 실질적으로 차이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직급별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의 평균비교를 보면, 5급 이상은 기관장 리더십과 복구계획 역량이 가장 중요도가 높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안전의식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등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반면에 6급 이하는 상황전파 역량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다음으로 기관장 리더십 역량, 안전의식 역량과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복구계획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등의 순으로 중요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직급별로 필수역량 중요도에 대한 인식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결과를 보면, 조기경보 역량의 중요도와 기관장 리더십 역량의 중요도에 있어서는 실질적으로 직급 간에 중요도 인식에 대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제2절 정책적 제언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제난관리 단계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예방단계(안전의식 역량, 재난예방 계획수립 역량, 기관장 리더십 역량, 정책결정 역량)에서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안전의식 역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방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전문지식의 결여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 역량제고 동기부족, 역량제고 기회부족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난 예방을 위한 전문지식을 강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실무자의 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적절한 지식기반 시스템을 제공하여야 한다. 또한 행정계획, 개발계획 등의 확정 이전에 재해영향을 검토하는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제도의 도입으로 재해유발 요인을 사전 차단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춰야 할 것이다. 또한 재난 위험시설에 대한 장, 단기 계획을 수립하여 재난 취약요인을 순차적으로 해소하고 유형별 재난 특성에 따른 세분화된 매뉴얼 개발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준비단계(교육 및 훈련 역량, 거버넌스 구축 역량, 협업 및 융합 역량, 재정 및 자원관리 역량, 사회기반시설보호 역량,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에서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담당공무원의 전문성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준비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전문지식의 결여, 역량제고 기회부족, 역량제고 동기부족,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 등으로 순으로 나타났다.

준비단계에서 안전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대안은 무엇보다 먼저 교육 운영 형태의 방식 개선이 필요하다. 즉 안전관리 담당공무원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 훈련 내용이 현업 관련성을 높일 수 있는 교육 과정의 운영방식으로 바뀌어야 하며 성과 지향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교육 형태로 탈바꿈해야 할 것이다. 효과적인 안전관리를 위해서는 모든 정보활동 및 의사결정 과정, 전략적 계획 수립, 체계적 의사 결정 등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전반지식을 갖출 수 있는 역량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특히 법령에 대한 지식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보다 특화된 교육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재의 비축과 수급 그리고 장비 및 시설의 확보가 필요하며 재난관리 기금 및 재해구호 기금의 적립 및 운용에 대한 준비도 되어있어야 할 것이다.

대응단계(대응복구장비, 구호물자투입 역량, 상황전파 역량, 조기경보 역량)에서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조기경보 역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응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로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역량제고 기회부족, 예산 부족, 역량제고 동기부족, 전문지식의 결여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는 중앙-지역간 긴급지원체계를 확립하여 상황전파와 조기경보 시스템이 원활히 구축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난 현장의 이재민을 신속하게 구호하고 현장을 수습할 수 있는 체계가 갖춰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종합상황실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종합적 상황관리 대응시스템이 필요하다.

복구단계(회복력 역량, 복구계획 역량)에서 중요도와 현재역량의 차이를 비교 했을 때 회복력 역량이 가장 큰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대응단계에 있어서 안전관리 역량 차이의 가장 큰 원인은 안전관리를 위한 법적·제도적 시스템의 미비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전문지식의 결여, 예산 부족, 역량제고 기회부족, 역량제고 동기부족, 역량보유자 배치 오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피해조사, 응급복구, 이재민 구호, 사후관리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위한 재난피해조사의 선진화 및 복구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며, 자원봉사 활동의 대상지역, 소요인력, 장비 등을 파악하여 신속하고 적절한 자원봉사 활동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내문헌

- 김석근, 최영훈, (2008), 지방자치단체 재난관리의 자원보유 인식과 협력에 관한 연구 - 소방공무원의 인식을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2권 1호
- 강인호, (2008), 미국 지방정부 재난관리체계와 정책시사점, 「정책분석평가학회보」.18권 3호
- 김세기, (2008), 전략적 인적자원개발과 조직유효성간의 관계, 서울벤처정보대학원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김택 · 유종해, (2006), 『공무원 인적자원관리론』, 한국학술정보(주).
- 박천오 외, 『인사행정의 이해』, 서울: 법문사.
- 배귀희, (2007),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관점에서의 고위공무원단 후보군의 역량강화에 관한 연구」, KIPA 연구보고서 2007-27.
- 배종석(1999), “경쟁우위와 인적자원관리: 전략적 인적자원관리 연구의 비판적 고찰과 연구방향 모색”, 『인사조직연구』, 제7권 2호, 1-45.
- 배종석, 박오원, (2006), 전략적 인적자원관리와 조직의 혁신성과.
- 유병태, 오금호, (2013), 재난관리 공시체계를 통한 지방자치단체 재난역량강화 방안, 「한국위기관리논집」, 9권 5호.
- 이재은, 양기근, (2005), 지속가능한 재난관리의 효율화 방안 연구 - 한국과 미국의 재난관리 사례 분석을 중심으로, 「현대사회와 행정」, 15권1호.
- _____ (2004) 재난관리의 효과성 제고 방안 - 시민참여와 거버넌스 「현대사회와 행정」: 14권 3호.
- 최희천, (2011), 재난관리 단계의 기존인식에 대한 비판적 고찰 : 대응단계와 복구단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위기관리논집」, 12권 2호.

□ 국외문헌

- Barney, J. B. 1991. Firm resources and sustained competitive advantage. *Journal of Management*, 17: 99-120.
- Barney, J. B., & Wright, P. M. 1998. On becoming a strategic partner: The role of human resources in gaining competitive advantage. *Human Resource Management*, 37(1): 31-46.
- Becker, B. E., & Huselid, M. A. 1998. High performance work systems and firm performance: A synthesis of research and managerial implication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16: 53-101.
- Berman, Evan M. et. al.(2001).*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ublic Service: Paradoxes Process and Problems*. London: Sage Pub.
- Cayer,N.Joseph and Parkes, Sandra J.(2001)."Human Resource Management Change in State and Local Government." In Kuotasi Tom Liou(ed), *Handbook of Public Management Practice & Reform*. N.Y.:Marcel Dekker Inc.
- Chadwick, C., & Cappelli, P. 1999. Alternative to generic strategy typologies i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In P. M. Wright, L. Dyer, J. W. Boudreau, & G. T. Milkovich (Eds.). *Research in personnel and human resources management Supplement 4*: 1-29, Greenwich, CT: JAI Press.
- Colbert, B. A. 2004. The Complex Resource-Based View: Implications for Theory and Practice i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29(3): 341-58.
- Delery, J. E. & Doty, D. H. (1996). Modes of Theorizing in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Test of Universalistic, Contingency, and Configurational Performance Predictions.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9(4): 802-35.
- Guest, D. E. 1999. Human resource management and performance: A review and research agenda. In R. S. Schuler & S. E. Jackson (Eds.).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177-190. Malden, MA: Blackwell.

-
- Huselid, M. A. 1995. The Impact of Human Resource Management Practices on Turnover, Productivity and Corporate Financial Performance.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38(3): 635-72.
- Martell, K.&Carroll, S.J.1995,"How Strategic is HRM", *Human Resource Management*, 34(2), P.255.
- Tichy, N. M., Formbrum, C. J., & Devanna, M. A.1982, Strategic human resource management, *Sloan Management Review*, 23, 2: 47-61.
- Tompkins, J. 2002. Strategic Human Resources Management in Government: Unresolved Issues. *Public Personnel Management*. 31(1):95-110.
- Ury. William L.. Jeanne M. Brett and Stephen B. Goldberg. (1989). *Getting Disputes Resolved: Designing Systems to Cut the Costs of Conflict*. San Francisco. London: Jossey-Bass Publishers.

■ ■ Abstract

A Study on the Strength of Safety Management Capacity in Local Government

In the wake the years Sae Wall Ho accident, it became clearly confirmed that the lack of safety management capacity of safety awareness lack of government over our society in general. Even in local government level, which is responsible for correspondence and recovery in the field are shown in vividly late response and it due to the damage caused by the lack of safety management capacity. In this study, to enhance the efficient safety management capacity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t puts the purpose of the research.

Is a questionnaire survey of safety management in charge of business personnel in local governments, it was carried out IPA analysis to derive the understanding and capacity building measures of the priority of safety management capacity. To analyze the differences in accordance wi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ce of each level of the wide area and municipality and foundation governments between regions was performed with t-Test and ANOVA. As a result, depending on the operational definition has been safety management capacity, to determine the level of safety management capacity of public officials of local governments, in step-by-step safety management, it presents a degree of improvement in each item, based on this to, was presented to strengthen strategy of safety management capability to ensure the safety management capacity at local governments level.

In the prevention stage, IPA analysis emphasis improvement area, appeared on the ability of safety awareness, to the second, in the preparatory stage, emphasis improvement area became evident in financial and collaboration with the fusion ability of the resource management capability. Third, response procedures, emphasis improvement area, not displayed, progress improvement area, has become the early warning capability and the corresponding repair equipment and relief supplies input capability. Fourth, the recovery stage, progressive improvement area has a competence resilience.

First, affiliation (wide area, foundation) to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current holding capacity for safety management, municipalities it was found to be generally high current holdings ability compared to the wide-area governments.

Secondly, serial another administrative post is I was found to be higher average image capability compared to the technical positions.

Thirdly, on the specific job class average and grade 5 or more 6 grade below it was found to exhibit a relatively high capacity.

And as a verification result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mean comparison of the importance of safety management capacity, first, in the importance of the required capacity of between regional governments and municipalities, belonging to public officials of regional governments it is about the importance of the required capacity it was found to be highly appreciated. Second, the serial stars, the result of the comparison the importance of career stars essential capability analysis, of the 15 pieces of the ability of both administrative staff and technical positions, was most important recognition on the status radio capacity.

Fourth, in recognition of the importance of the job grade another essential ability, grade 5 or more is aware as has the highest importance leadership and recovery planning ability of the chief engineer, the most state radio competence 6 than Grade It had been recognized as an important.